

2016년 5월 4일

# 투자전략 Daily

• 기술적분석

CHART OF THE WEEK: 달러 약세

• 중화권 증시 동향

정책 기대로 중국 증시 급등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한솔신텍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SK머티리얼즈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자동차, 통신서비스, GS홈쇼핑,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모두투어,  
아모레G, 아모레퍼시픽, 아진산업, 하나투어, 한화테크윈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TF | 강송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글로벌주식 | 이수정 ☎ 3276-625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설화 ☎ 3276-6274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4/27(수)	4/28(목)	4/29(금)	5/2(월)	5/3(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15.40	2,000.93	1,994.15	1978.15	1986.41	
	등락폭	-4.23	-14.47	-6.78	-16	8.26	
	등락종목	상승(상한)	305(0)	377(2)	339(0)	200(0)	501(1)
		하락(하한)	490(0)	427(0)	457(0)	617(0)	287(0)
	ADR	101.19	98.81	97.48	93.81	95.90	
	이격도	10 일	100.05	99.40	99.17	98.53	99.06
		20 일	100.96	100.23	99.90	99.09	99.48
	투자심리	40	30	30	30	30	
	거래량	(백만 주)	413	341	395	328	308
	거래대금	(십억 원)	5,398	5,461	4,914	3879	3744
코스닥	코스닥지수	699.52	699.7	699.77	690.27	698.66	
	등락폭	-2.54	0.18	0.07	-9.5	8.39	
	등락종목	상승(상한)	423(3)	539(2)	434(4)	273(3)	691(2)
		하락(하한)	627(0)	507(0)	615(0)	801(1)	360(0)
	ADR	103.41	103.41	103.40	101.99	103.22	
	이격도	10 일	99.99	99.93	99.88	98.59	99.83
		20 일	100.41	100.37	100.30	98.94	100.13
	투자심리	5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757	665	635	681	809
	거래대금	(십억 원)	3,646	3,441	3,132	3481	3564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923.0	1,041.2	745.4	133.1	114.6	153.0	88.6	8.8	247.3	43.6
	매도	1,854.6	954.4	923.4	398.1	100.2	155.0	65.7	12.7	191.7	20.9
	순매수	68.5	86.8	-178.0	-265.0	14.4	-2.0	22.9	-3.9	55.6	22.7
	5월 누계	248.8	55.1	-355.7	-409.9	10.9	-12.3	21.2	-5.8	40.1	51.8
	16년 누계	-2,334.4	2,729.2	-571.7	-362.0	2,494.7	-1,427.3	-1,120.5	-385.7	229.4	176.8
코스닥	매수	3,194.9	234.1	133.8	29.6	14.1	33.4	23.3	1.4	32.0	18.3
	매도	3,260.6	176.0	109.5	31.9	13.2	32.4	6.8	1.4	23.9	35.0
	순매수	-65.8	58.2	24.3	-2.3	0.8	1.1	16.5	0.0	8.1	-16.7
	5월 누계	9.7	4.8	11.0	-4.3	0.5	8.9	7.4	-0.1	-1.5	-25.5
	16년 누계	2,567.1	302.8	-2,143.1	-266.5	-143.9	-680.3	-250.2	-104.6	-697.7	-726.9

## CHART OF THE WEEK: 달러 약세

2016년 Target KOSPI	2,250pt
12MF PER	10.39배
12MF PBR	0.93배
Yield Gap	8.2%P

- ▶ 달러 인덱스는 중기적으로 주요 지지선인 92pt를 하향 돌파할 가능성
- ▶ 이에 따라 완만한 상품 가격 회복 및 인플레이션 지속될 전망
- ▶ MSCI ACWI는 기술적으로 이동평균선 위까지 단기 하락 가능

### ■ 달러 약세로 시작한 5월

달러 인덱스는

- 1) 4월 FOMC의 기준금리 동결 및 완화적 입장 발표,
- 2) 미국 1분기 성장률 (0.5%)의 시장 예상치 하회로 인해 약세. 2015년 이후 주요 지지선 하향 돌파

[그림 1] 미국 달러 인덱스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반면 유로존 1분기 성장률 (0.6%)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동시에 미국 1분기 성장률(잠정치)을 넘어섬  
 → 성장률 격차로 인해 달러 강세/유로 약세 가속화

[그림 2] 유로화 - 필라델피아 지수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 기술적분석

엔화는 BOJ 통화정책 동결에 따라 크게 강세  
 → 특히 장기 지지선을 상향 돌파한 엔화(달러 인덱스 내 비중 13.6%) 강세가 추세적 달러 약세를 뒷받침.  
 그밖에도 유로화(57.6%), 영국 파운드화(11.9%), 캐나다 달러(9.1%), 스웨덴 크로나(4.2%), 스위스 프랑(3.6%) 모두 단기 랠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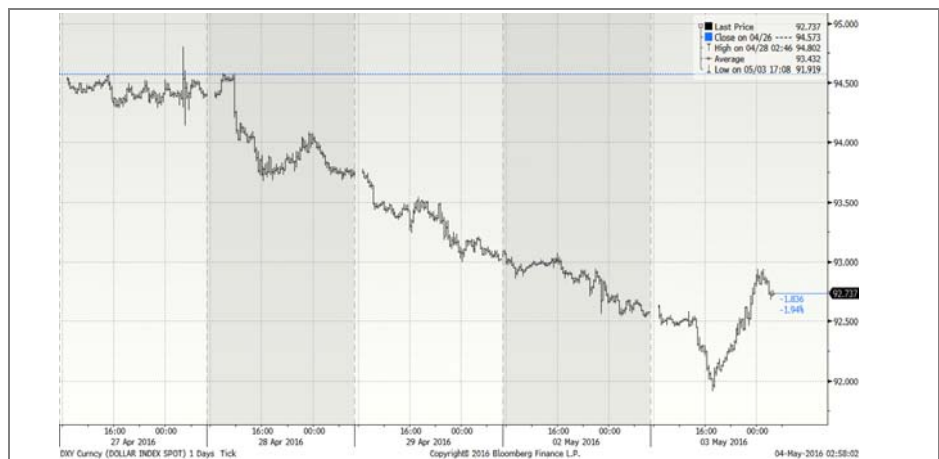
[그림 3] 엔화 - 필라델피아 지수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3월 달러 인덱스는 매파로 분류되는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장이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실현 가능한 선택지”라고 발언하며 장중 V자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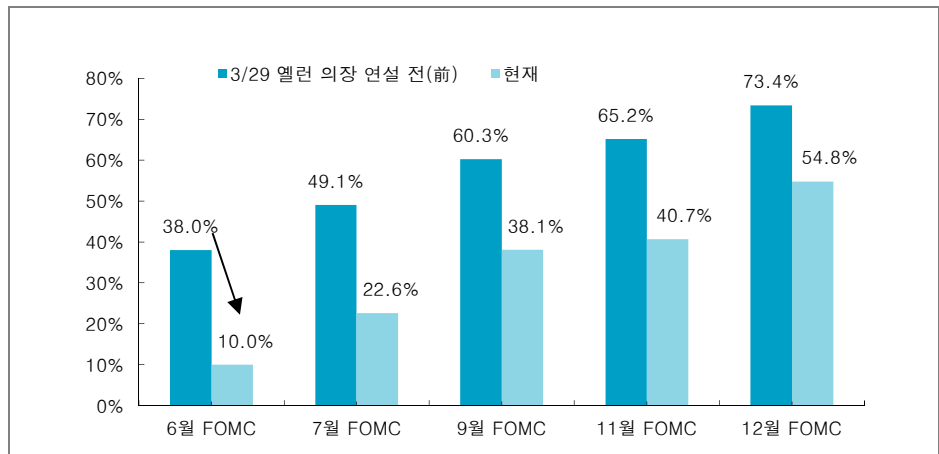
[그림 4] 달러 인덱스 최근 5거래일 일종 차트: 92pt에서 반등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는 금년 1회, 12월 FOMC 금리인상 전망이 우세. 6월 인상 기대는 10%대로 크게 하락. 록하트 의장의 6월 언급은 지난 3월 금리동결 직후 일부 연방은행장들이 4월을 언급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 이후 옐런 의장이 금리인상은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상 기대감 재차 하락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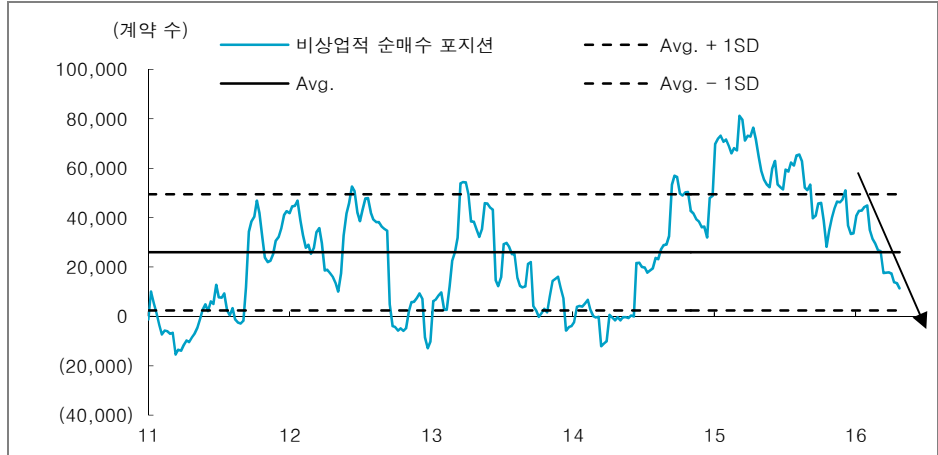
[그림 5] 연방기금 금리선물 내재 금리 인상 확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중기적으로 달러 약세는 추세적이라는 판단. 미 달러 비상업적 순매수 포지션은 연초 이후 가파르게 감소. 현재 속도대로면 5월 중순 순매도 전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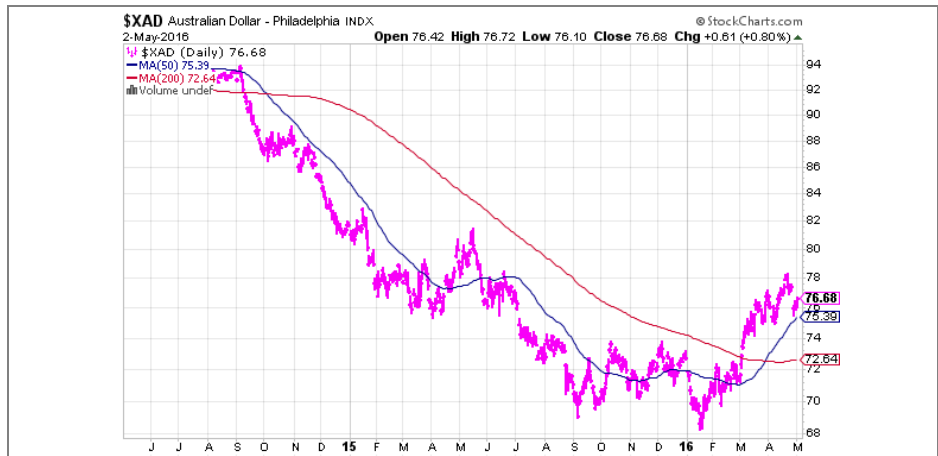
[그림 6] CFTC 미 달러 비상업적 순매수 포지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한편 3일 호주중앙은행 (RBA)의 기준금리 인하 (2.00%→1.75%)로 호주 달러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 약세 시현 → RBA의 이번 결정은 여타 국가들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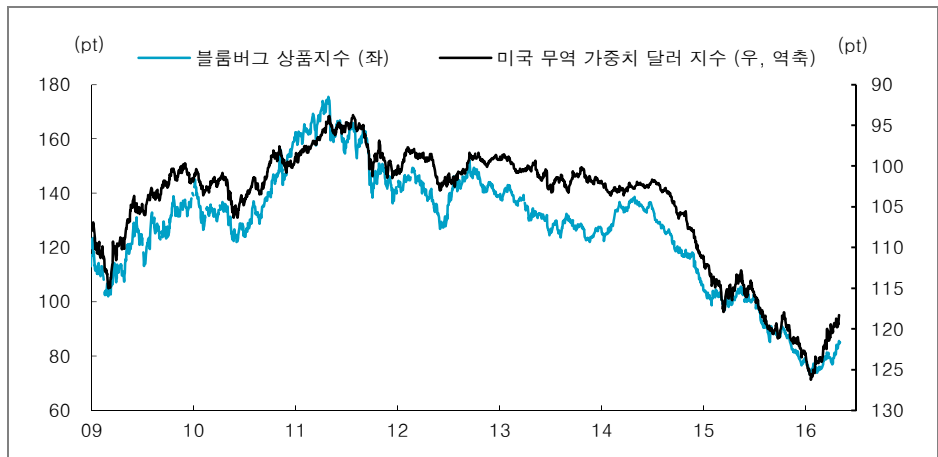
[그림 7] 호주 달러 - 필라델피아 지수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연초 이후 상품 가격 회복은 대부분 달러 약세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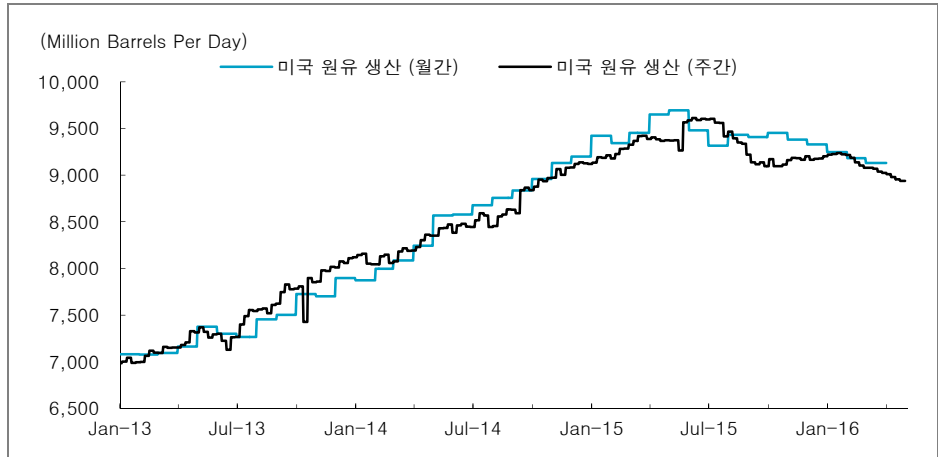
[그림 8] 상품 지수 vs. 무역 가중치 미 달러 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최근 유가 회복에도 미국 산유량 감소 추세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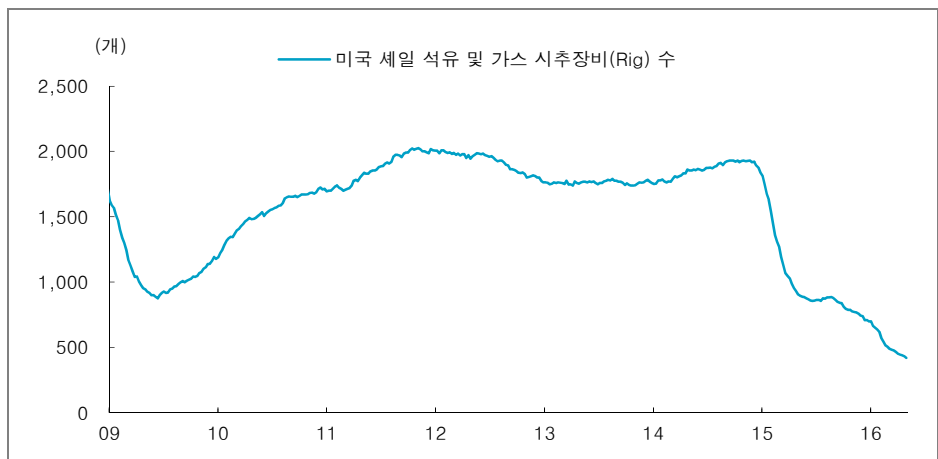
[그림 9] 미국 원유 생산 추이



자료: DOE, 한국투자증권

미국 셰일오일 시추기(Rig) 수는 4월 29일 기준 420개로 올해 들어 278개 감소

[그림 10] 미국 셰일오일 시추장비(Rig) 수 추이



자료: Baker Hughes, 한국투자증권

3일 유가는 미국과 중국 제조업 지수의 시장예상치 하회 및 EU의 올해 유로존 성장률 하향(1.7%→1.6%)에 따른 수요 우려에 하락. 그러나 연간으로는 달러 약세와 공급 감소의 영향으로 완만한 상승 전망

[그림 11] WTI 선물 최근 5거래일 일종 차트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달러 약세는 유가와 더불어  
금 가격 상승 요인.  
금은 올해 가장 유망한 투자  
자산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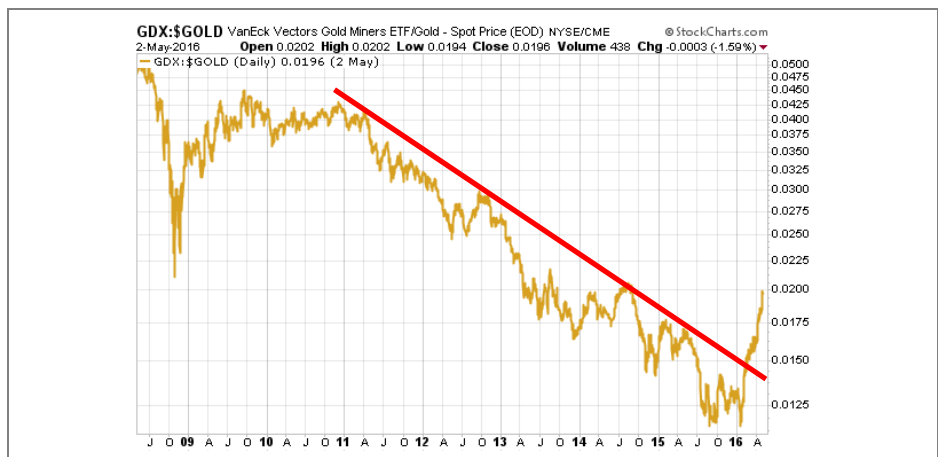
[그림 12] 금 현물 가격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일반적으로 금 채굴기업  
(Gold miners)의 주가는  
금 가격보다 탄력적임.  
즉, 상승장에서는 더 크게  
상승, 하락장에서는 더 크게  
하락하는 경향.  
올해 금 채굴기업 주가 급등  
은 금 강세장을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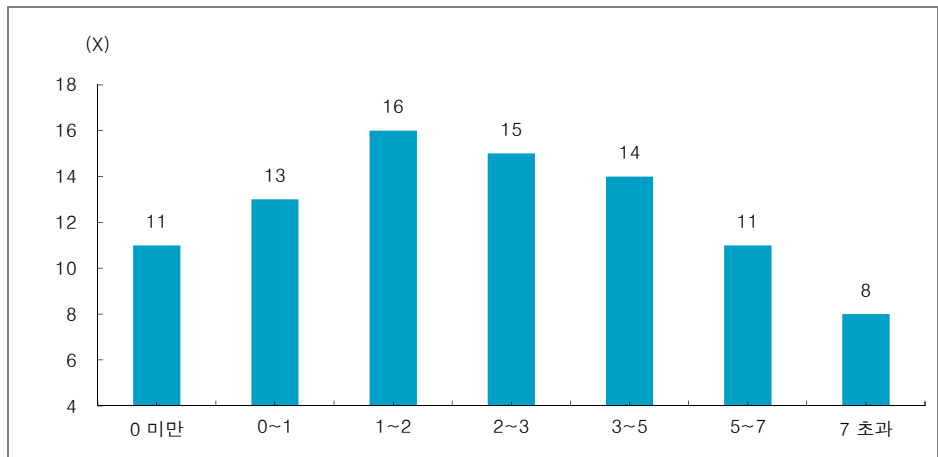
[그림 13] 금 채굴기업(Gold Miners) ETF / 금 현물 가격 비율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최근 달러 약세, 유가 안정,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  
조에 기대인플레이션 반등.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1~2% 구간에서 증시  
밸류에이션 양호

[그림 14] 인플레이션 구간별 S&P 500 평균 P/E (1925~2016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MSCI ACWI(전세계 주가  
지수)는 작년 11월의 전고점  
레벨에서 저항받고 하락 중.  
단기적으로 이동평균선  
위까지 하락 가능

[그림 15]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iShares (ACWI)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S&P 500 역시 2,100선에서  
차익실현 물량 출회로 저항  
직면. 4월 초 수준 혹은  
이동평균선 위까지 하락  
여지

[그림 16] S&P 500 일봉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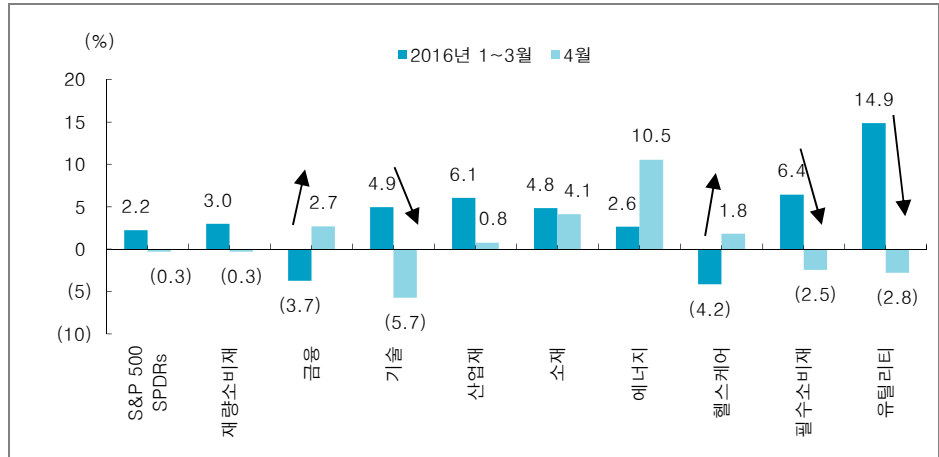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 기술적분석

1~3월에는 방어주 성격의 유틸리티와 필수소비재가 시장 아웃퍼폼, 산업재와 기술주 역시 견고. 반면 금융과 헬스케어 업종은 시장 언더퍼폼. 4월은 유가 안정으로 에너지와 소재 섹터의 수익률이 급등한 가운데, 금융과 헬스케어 업종이 시장 주도.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기술주는 하락 전환

[그림 17] S&P 500 연초 이후 섹터별 수익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기술 섹터의 약세로 미국 증시 전체 지수의 추세적 강세 가능성 낮음. 그러나 여타 업종의 상대적 강세로 낙폭은 상쇄될 것

[그림 18] Technology SPDR ETF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애플은 13년 만의 실적 감소로 8일 연속 주가가 하락하며 기술주 약세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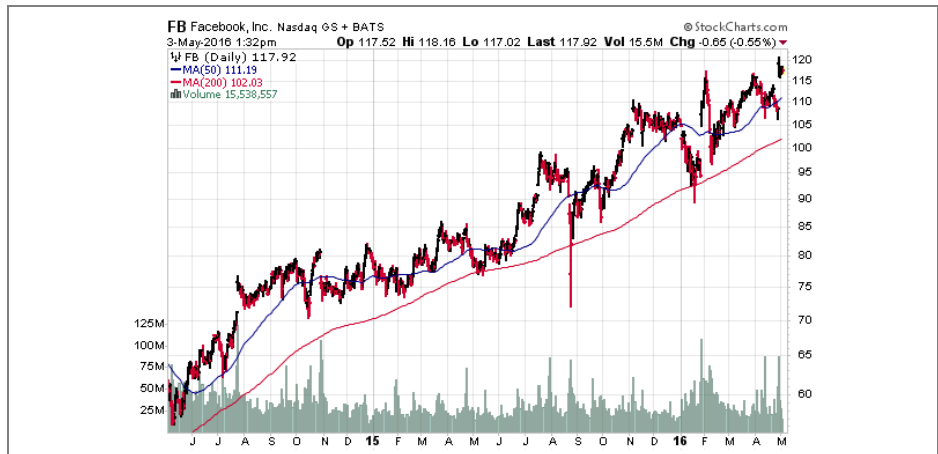
[그림 19] 애플 주가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FANG(Facebook, Amazon.com, Netflix and Google)으로 대표됐던 성장주는 차별화 진행 중 : 페이스북과 아마존 강세 Vs. 넷플릭스와 구글 약세

[그림 20] 페이스북 주가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넷플릭스의 1분기 신규 가입자 수는 674만명으로 시장전망치인 610만명을 상회했지만, 불투명한 2분기 성장 전망을 내놓으며 주가 급락

[그림 21] 넷플릭스 주가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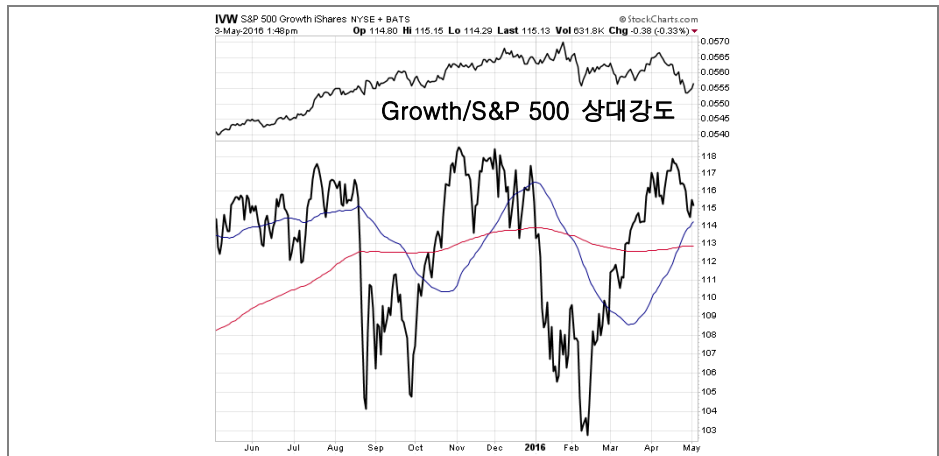
가치주 강세 & 성장주 약세  
추세 4월 말 이후 주춤하나  
중기적으로 지속될 전망

[그림 22] S&P 500 Value iSha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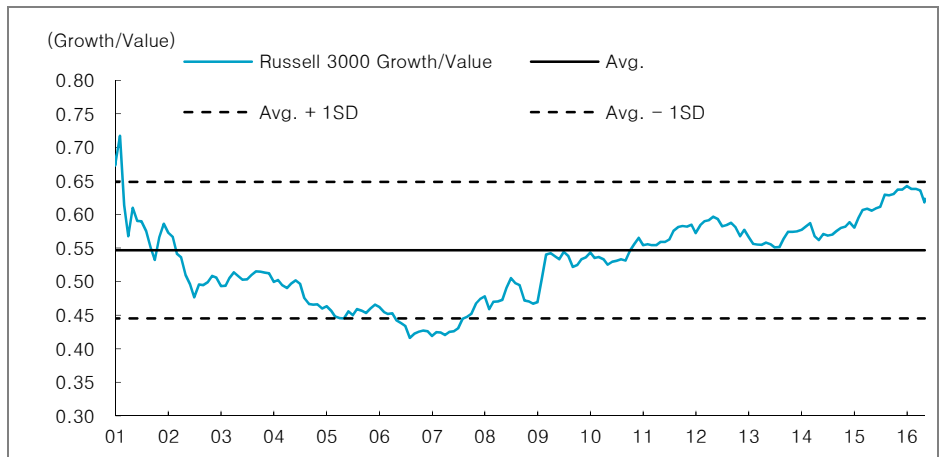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그림 23] S&P 500 Growth iShares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그림 24] Russell 3000 성장주/가치주 상대강도



자료: StockCharts.com,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Global Asset Monitoring

〈표 1〉 주식 / 원자재 / REIT 기간별 수익률 순위

(단위: %)

	1W	1M	3M	YTD	1Y					
1	금	4.3	WTI	20.5	RBOB 가솔린	51.3	은	27.1	설탕	24.8
2	니켈	3.5	난방유	18.7	WTI	37.3	브라질 주식	23.6	러시아 주식	15.7
3	브라질 주식	3.3	은	16.6	브라질 주식	35.3	라틴아메리카 주식	23.4	코코아	10.8
4	라틴아메리카 주식	3.2	대두	13.8	라틴아메리카 주식	31.5	금	22.2	금	10.3
5	대두	2.7	니켈	13.6	설탕	25.0	난방유	22.0	은	8.9
6	호주 주식	2.6	코코아	10.7	EMEA 주식	24.5	RBOB 가솔린	21.1	옥수수	8.7
7	은	2.5	옥수수	10.5	난방유	24.5	대두	20.0	대두	7.9
8	코코아	2.4	알루미늄	9.8	대두	19.2	WTI	19.7	아시아 REIT	3.5
9	옥수수	2.3	RBOB 가솔린	9.5	은	19.0	아시아 REIT	15.1	멕시코 주식	2.5
10	설탕	2.2	면	8.7	신흥국 주식	15.8	EMEA 주식	14.9	전세계 REIT	2.2
11	원자재 전체	2.0	원자재 전체	8.6	코코아	15.5	알루미늄	11.2	밀	1.9
12	중국 주식	1.6	호주 주식	7.1	아시아 REIT	14.0	러시아 주식	10.9	미국 주식	-1.3
13	천연가스	1.5	설탕	6.1	금	13.5	LME금속지수	9.6	면	-3.7
14	LME금속지수	1.4	금	6.0	니켈	12.5	옥수수	9.0	브라질 주식	-4.7
15	알루미늄	1.4	LME금속지수	5.9	일본 제외 아시아 주식	11.9	니켈	7.2	남아공 주식	-5.2
16	난방유	0.8	브라질 주식	5.9	LME금속지수	11.6	캐나다 주식	6.6	선진국 주식	-6.3
17	WTI	0.6	천연가스	5.4	알루미늄	11.3	멕시코 주식	6.4	인도 주식	-6.6
18	캐나다 주식	0.5	아시아 REIT	5.4	원자재 전체	11.2	설탕	5.7	한국 주식	-6.6
19	아시아 REIT	0.5	러시아 주식	5.2	러시아 주식	11.1	전세계 REIT	5.7	전세계 주식	-7.8
20	전세계 REIT	0.4	라틴아메리카 주식	4.5	캐나다 주식	10.1	신흥국 주식	5.2	호주 주식	-7.9
21	EMEA 주식	0.4	EMEA 주식	4.5	호주 주식	9.8	구리	4.8	캐나다 주식	-9.6
22	멕시코 주식	0.3	구리	3.4	전세계 주식	9.4	원자재 전체	3.6	커피	-10.0
23	밀	-0.2	캐나다 주식	3.2	전세계 REIT	9.0	밀	1.9	영국 주식	-11.8
24	구리	-0.2	그리스 주식	3.0	중국 주식	8.8	미국 주식	1.8	알루미늄	-11.8
25	미국 주식	-0.3	스페인 주식	2.4	미국 주식	8.8	면	1.7	독일 주식	-13.2
26	선진국 주식	-0.6	선진국 주식	2.2	선진국 주식	8.7	한국 주식	1.3	프랑스 주식	-13.5
27	전세계 주식	-0.6	전세계 주식	2.1	구리	6.8	전세계 주식	1.2	스위스 주식	-13.9
28	면	-0.6	스위스 주식	1.7	남아공 주식	6.4	호주 주식	1.1	대만 주식	-15.5
29	러시아 주식	-0.7	독일 주식	1.5	홍콩 주식	6.3	선진국 주식	0.8	라틴아메리카 주식	-15.7
30	신흥국 주식	-0.8	신흥국 주식	1.1	스페인 주식	6.0	일본 제외 아시아 주식	0.3	일본 주식	-17.3
31	영국 주식	-1.5	프랑스 주식	1.0	멕시코 주식	5.7	남아공 주식	-0.2	유럽 주식	-17.7
32	일본 제외 아시아 주식	-1.6	이탈리아 주식	1.0	그리스 주식	5.6	대만 주식	-0.5	LME금속지수	-18.0
33	한국 주식	-1.6	전세계 REIT	0.9	옥수수	5.4	코코아	-0.7	EMEA 주식	-18.1
34	남아공 주식	-1.7	홍콩 주식	0.9	독일 주식	5.3	영국 주식	-1.2	원자재 전체	-19.9
35	RBOB 가솔린	-2.0	유럽 주식	0.8	한국 주식	5.1	인도 주식	-3.4	신흥국 주식	-20.1
36	그리스 주식	-2.5	한국 주식	0.7	인도 주식	4.2	커피	-5.2	일본 제외 아시아 주식	-20.6
37	홍콩 주식	-2.9	밀	0.6	영국 주식	4.1	홍콩 주식	-5.6	이탈리아 주식	-22.1
38	인도 주식	-3.0	남아공 주식	0.5	프랑스 주식	3.3	프랑스 주식	-5.8	스페인 주식	-22.6
39	대만 주식	-3.1	미국 주식	0.4	면	3.3	독일 주식	-7.5	구리	-23.7
40	독일 주식	-3.1	영국 주식	0.3	이탈리아 주식	3.2	그리스 주식	-7.6	RBOB 가솔린	-25.0
41	스위스 주식	-3.2	일본 제외 아시아 주식	0.1	유럽 주식	2.7	스페인 주식	-7.7	WTI	-25.1
42	프랑스 주식	-3.7	일본 주식	-0.1	대만 주식	2.0	유럽 주식	-8.9	천연가스	-25.7
43	이탈리아 주식	-3.8	인도 주식	-0.2	천연가스	1.2	스위스 주식	-11.3	홍콩 주식	-26.5
44	커피	-4.1	중국 주식	-0.6	밀	-0.3	천연가스	-11.8	그리스 주식	-26.9
45	유럽 주식	-4.7	멕시코 주식	-0.8	커피	-1.2	일본 주식	-15.2	니켈	-31.3
46	스페인 주식	-5.1	대만 주식	-4.2	스위스 주식	-3.8	중국 주식	-15.4	난방유	-32.3
47	일본 주식	-8.1	커피	-5.6	일본 주식	-6.1	이탈리아 주식	-16.1	중국 주식	-32.6

주: 국가별 대표 주가지수 이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기술적분석

〈표 2〉 Global Index Universe

(단위: %, X)

	EPS Growth (% YoY)		PE (X)		ROE (%)		PB (X)		EPS Changes (%)		Price (% Change)		Div Yield (%)
	FY1	FY2	12MF	Z-val	12MF	Z-val	12MF	Z-val	4W	24W	4W	24W	
MSCI AC WORLD	2.4	13.5	15.7	1.3	12.1	(2.5)	1.9	0.7	(0.9)	(1.2)	3.6	0.4	2.7
MSCI WORLD	1.7	13.3	16.2	1.2	12.3	(2.5)	2.0	0.7	(0.9)	(1.2)	3.5	0.1	2.7
MSCI WORLD ex US	2.2	12.1	14.9	0.9	10.0	(2.6)	1.5	(0.1)	(1.2)	(1.7)	5.2	(0.3)	3.5
MSCI EM	7.2	14.5	12.1	2.2	10.9	(1.7)	1.3	(0.2)	(0.7)	(1.4)	4.7	2.3	2.9
MSCI EM ASIA	3.8	11.9	12.1	2.1	11.1	(2.1)	1.3	(0.8)	(0.9)	(1.1)	3.6	0.3	2.7
MSCI EUROPE	(0.2)	13.9	15.4	1.2	10.9	(2.0)	1.7	0.5	(1.4)	(1.6)	5.7	(1.3)	3.8
MSCI EM EUROPE	(7.0)	21.5	8.5	3.6	8.9	(1.1)	0.7	0.5	(0.0)	(3.6)	7.1	5.3	4.0
MSCI NORTH AMER	0.9	14.6	17.3	1.4	14.8	(0.7)	2.6	1.2	(0.7)	(0.9)	2.6	0.8	2.3
MSCI EM LATIN AMER	52.4	25.4	14.1	1.9	10.7	(1.7)	1.5	0.2	0.3	(1.9)	5.5	12.4	3.0
미국	1.3	14.3	17.3	1.3	15.3	(0.3)	2.6	1.3	(0.6)	(0.8)	2.3	0.5	2.2
영국	(5.7)	19.0	16.4	1.9	10.8	(1.8)	1.8	0.7	(1.8)	(2.4)	5.1	2.0	4.2
일본	2.4	15.3	12.9	(0.6)	8.4	(0.4)	1.1	(0.6)	(3.4)	(2.6)	(1.1)	(15.2)	2.4
캐나다	(5.1)	19.6	16.8	1.8	10.0	(2.1)	1.7	0.2	(1.7)	(2.6)	3.0	2.6	3.1
프랑스	0.1	11.3	14.7	0.9	9.6	(1.9)	1.4	0.6	(0.8)	(1.1)	4.0	(6.2)	3.7
스위스	1.8	11.1	17.1	1.1	13.9	(1.6)	2.4	0.3	(1.6)	(1.6)	4.5	(6.5)	3.4
독일	(0.6)	10.4	13.0	0.6	11.6	(2.7)	1.5	0.1	(1.0)	(0.8)	4.1	(4.8)	3.2
호주	(13.4)	5.5	15.9	1.4	10.9	(2.0)	1.7	(0.6)	(0.4)	(1.3)	3.9	1.2	4.8
스웨덴	(1.6)	8.3	15.6	0.6	13.7	(0.8)	2.1	0.4	(1.7)	(1.6)	4.6	(4.9)	4.1
스페인	3.9	14.1	12.8	(0.0)	8.7	(1.8)	1.1	(0.6)	(0.9)	(1.6)	2.2	(13.0)	4.7
홍콩	4.9	7.1	14.9	0.4	6.9	(3.5)	1.0	(1.9)	0.0	(1.1)	4.4	0.0	3.5
네덜란드	2.5	11.6	15.6	0.9	12.1	(0.6)	1.9	0.7	(0.5)	(0.8)	2.5	(2.5)	3.1
이탈리아	37.5	22.9	13.2	0.5	7.0	(1.4)	0.9	0.1	(3.4)	(3.8)	0.8	(18.9)	4.6
싱가포르	(1.2)	6.2	12.9	(0.4)	8.6	(2.5)	1.1	(1.5)	(0.3)	(1.3)	4.7	(0.6)	4.1
벨기에	(1.6)	11.3	20.3	2.3	11.3	(2.9)	2.3	1.5	(1.9)	(1.2)	4.4	0.5	3.2
덴마크	13.4	14.0	19.9	1.8	19.0	1.6	3.8	1.9	(0.3)	(1.2)	3.4	0.7	2.2
핀란드	(9.0)	8.8	15.9	0.1	12.0	0.2	1.9	0.2	(0.5)	(0.2)	3.0	(7.5)	4.3
노르웨이	(10.2)	24.3	14.8	2.8	9.2	(1.8)	1.4	0.0	(2.8)	(3.2)	3.6	(7.6)	4.8
이스라엘	3.8	9.8	11.2	0.9	12.5	(0.2)	1.4	0.7	(0.4)	(0.2)	3.0	(6.7)	2.1
아일랜드	27.5	17.4	16.7	(0.8)	12.5	1.8	2.1	2.2	(1.2)	(1.6)	0.2	(4.2)	2.1
오스트리아	(16.4)	25.5	12.0	0.9	7.8	(0.5)	0.9	0.6	(0.0)	0.2	6.3	(4.6)	3.2
포르투갈	1.2	12.8	13.1	(0.6)	10.4	1.2	1.4	0.1	(0.7)	(0.4)	1.2	1.4	4.3
뉴질랜드	4.5	8.7	20.5	1.6	10.1	(0.6)	2.1	1.2	(0.0)	(0.4)	3.1	13.1	4.9
중국	3.2	13.9	10.9	1.9	11.7	(2.3)	1.3	(0.0)	(2.0)	(1.5)	5.7	(5.7)	2.6
한국	2.9	8.6	10.7	2.0	8.7	(1.5)	0.9	(1.0)	0.6	(0.2)	0.6	0.2	1.9
대만	(1.0)	9.5	12.6	(0.8)	11.9	(0.7)	1.5	(1.4)	(1.0)	(1.2)	(0.4)	0.1	4.3
인도	17.5	17.6	17.3	1.2	15.0	(2.8)	2.6	0.8	(0.5)	(1.5)	4.1	2.4	1.7
말레이시아	2.2	9.2	15.7	1.2	10.3	(1.9)	1.6	(1.6)	(0.4)	(0.7)	(0.2)	2.1	3.1
인도네시아	11.4	13.5	15.2	1.4	16.6	(1.9)	2.5	(1.0)	(0.5)	(0.5)	2.0	12.5	2.5
필리핀	8.6	9.6	18.0	(0.2)	13.4	(1.9)	2.4	(1.1)	(0.6)	(0.6)	(0.9)	2.5	1.9
태국	8.0	13.4	14.1	1.7	12.3	(1.7)	1.7	(1.0)	(0.4)	(1.4)	1.1	1.6	3.2
브라질	69.9	34.9	12.5	2.1	9.9	(1.8)	1.2	0.1	1.3	(2.7)	4.4	13.8	3.6
칠레	31.2	13.4	15.5	0.4	9.8	(1.0)	1.5	(0.4)	(2.9)	(3.3)	1.6	3.3	3.2
콜롬비아	70.3	19.6	12.7	(1.0)	9.4	(0.3)	1.2	(0.6)	0.4	2.3	4.4	7.4	2.9
멕시코	43.9	13.7	18.1	0.6	12.7	(0.6)	2.3	(0.4)	(0.9)	(1.1)	(0.2)	3.8	2.2
페루	3.8	20.5	15.2	2.8	12.8	(1.0)	2.0	(0.1)	1.7	(1.3)	10.0	23.2	1.5
체코	(5.8)	(7.0)	13.7	1.0	9.1	(1.1)	1.3	(0.8)	(3.3)	(1.4)	(0.4)	(7.4)	6.2
이집트	38.6	31.5	9.4	0.1	15.1	0.8	1.4	0.6	(1.9)	(4.1)	6.2	18.8	2.8
그리스	25.2	17.3	11.8	(0.4)	6.8	(0.5)	0.8	(0.8)	(6.5)	(6.0)	1.9	(32.3)	3.5
헝가리	14.9	17.4	12.4	1.8	10.5	1.5	1.3	3.1	(0.4)	(0.6)	6.8	23.9	2.9
폴란드	(6.3)	5.5	12.7	0.2	8.5	(1.9)	1.1	(1.4)	(0.6)	(1.2)	0.0	(3.2)	4.0
러시아	(19.0)	29.0	6.8	3.6	8.0	(1.2)	0.5	0.4	0.8	(5.2)	10.2	7.9	4.3
남아공	18.2	14.1	15.1	0.8	13.7	(1.9)	2.1	(0.7)	0.1	(0.2)	3.2	2.6	3.2
터키	11.3	14.7	9.2	(0.6)	13.1	(1.1)	1.2	(0.9)	(0.3)	0.1	5.3	5.6	3.2

자료: Thomson Reuters, 한국투자증권

〈표 3〉 COT(Commitments Of Traders) Report – Non Commercial Position

Category	Commodity	Price Weekly Chg	Number of Contracts		52-Week Z-Score		
			Weekly Chg	Net Position	Price	Net Position	Net Position Weekly Chg
Fixed Income	1 CBOT 2 YR US TREASURY NOTES	(0.2%)	(10,959)	(96,084)	(0.84)	(1.00)	↘
	2 CBOT 5 YR US TREASURY NOTES	(0.6%)	12,680	(117,845)	0.47	0.36	↗
	3 CBOT 10 YR US TREASURY NOTES	(0.9%)	(39,496)	(63,775)	0.76	(0.77)	↘
	4 CBOT 30 YR US TREASURY NOTES	(2.3%)	(4,800)	48,175	0.79	<b>1.78</b>	↘
	5 CBOT ULTRA-LONG U.S. TREASURY BONDS	(2.6%)	(76)	(108,793)	1.13	(1.49)	↘
Stocks	6 CME S&P 500 STOCK INDEX	(0.3%)	278	13,526	0.80	<b>1.60</b>	↗
	7 CME E-MINI S&P 500	(0.3%)	67,398	1,460	0.80	<b>2.12</b>	↗
	8 CME E-MINI NASDAQ 100	(1.6%)	(13,676)	36,814	0.16	(0.06)	↘
	9 CBOT E-MINI DJIA	(0.2%)	(2,524)	12,278	0.96	0.62	↘
FX	10 CME BRITISH POUND STERLING	1.2%	6,483	(48,669)	(0.79)	<b>(1.57)</b>	↗
	11 CME EURO	(0.8%)	7,250	(39,667)	1.03	<b>1.58</b>	↗
	12 CME CANADIAN DOLLAR	0.2%	4,691	11,999	0.94	<b>1.96</b>	↗
	13 CME MEXICAN PESO	(0.6%)	(4,906)	(19,315)	(0.64)	1.13	↘
	14 CME AUSTRALIAN DOLLAR	(1.0%)	15,434	59,540	1.32	<b>2.59</b>	↗
	15 CME JAPANESE YEN	(2.0%)	(5,372)	66,498	<b>1.79</b>	<b>1.55</b>	↘
	16 CME NEW ZEALAND DOLLARS	(2.3%)	2,033	7,384	0.61	1.42	↗
	17 CME SWISS FRANC	(1.5%)	(145)	9,265	(0.05)	1.16	↘
	18 CME BRAZILIAN REAL	0.6%	925	14,089	0.27	<b>2.28</b>	↗
	19 ICE US DOLLAR	0.6%	(2,119)	11,330	(1.34)	<b>(2.10)</b>	↘
20 CME 3-MONTH EURODOLLARS	(0.0%)	90,450	(150,334)	(1.26)	(0.43)	↗	
Metals	21 CMX GOLD	(0.9%)	4,020	220,857	1.49	<b>2.23</b>	↗
	22 CMX SILVER	0.8%	7,345	78,773	<b>2.09</b>	<b>2.18</b>	↗
	23 CMX PLATINUM	0.5%	2,914	34,853	0.55	<b>1.92</b>	↗
	24 CMX PALLADIUM	3.8%	2,840	6,452	(0.05)	(0.39)	↗
	25 CMX COPPER	0.8%	16,440	(8,076)	(0.30)	0.83	↗
Softs	26 ICE COTTON	1.2%	12,534	32,768	0.38	(0.03)	↗
	27 ICE COFFEE	(0.5%)	(2,485)	13,284	0.27	<b>1.69</b>	↘
	28 ICE SUGAR	4.0%	23,439	189,981	1.43	1.17	↗
	29 ICE FROZEN ORANGE JUICE	(8.2%)	(1,035)	3,212	(0.49)	1.16	↘
30 ICE COCOA	4.5%	9,537	52,506	0.40	0.04	↗	
Grain	31 CBOT WHEAT	(1.3%)	19,848	(62,183)	(0.38)	(0.38)	↗
	32 KCB WHEAT	(2.2%)	17,216	(3,007)	(0.62)	1.13	↗
	33 MGE WHEAT	(0.7%)	1,969	1,151	0.35	<b>2.22</b>	↗
	34 CBOT SOYBEAN	3.3%	48,369	181,080	<b>1.86</b>	<b>2.67</b>	↗
	35 CBOT CORN	(0.6%)	103,351	168,314	0.64	1.09	↗
	36 CBOT SOYBEAN OIL	(2.4%)	12,646	126,657	1.40	<b>1.97</b>	↗
	37 CBOT SOYBEAN MEAL	6.0%	23,379	49,079	0.75	0.53	↗
Livestock	38 CME FEEDER CATTLE	(2.4%)	426	1,227	(1.39)	(0.74)	↗
	39 CME LEAN HOGS	(1.9%)	(4,658)	30,798	0.62	1.26	↘
	40 CME LIVE CATTLE	(0.4%)	(3,307)	17,595	(1.25)	(0.01)	↘
Oil	41 NYM CRUDE OIL	7.2%	90	334,265	0.01	<b>1.53</b>	↗
	42 NYM GASOLINE RBOB	5.8%	(585)	75,028	0.20	0.67	↘
	43 NYM NATURAL GAS	(2.7%)	16,879	(116,452)	(0.91)	<b>3.14</b>	↗
	44 NYM HEATING OIL	5.5%	2,486	4,175	(0.32)	1.02	↗
	45 ICE EUROPE GASOIL	4.9%	(1,217)	(27,946)	(0.35)	(1.34)	↘
	46 ICE NATURAL GAS HENRY HUB	(2.7%)	(13,769)	384,866	(0.91)	<b>1.62</b>	↘
	47 ICE CRUDE OIL, LIGHT SWEET	7.2%	3,455	(4,416)	0.00	(1.39)	↗
48 Foodstuff	CME MILK (class III)	(0.6%)	(1,324)	5,691	(1.36)	(1.27)	↘

주: Price Weekly Chg 는 COT Report Data 와 동일 기간 기준으로 계산  
 자료: CFTC,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정책 기대로 중국 증시 급등

- ▶ 상해종합지수 1.9% 상승,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기대로 투자심리 개선
- ▶ 홍콩H지수 2.1% 급락, 노동절 기간에 있었던 대내외 악재가 동시에 후반영 되며 지수 급락

상해종합지수 1.9% 급등,  
양조, 보안장비, 음식료, 소프트웨어 등의 업종 강세

### ■ 중국 시장

노동절 휴장 후 개장한 상해종합지수는 1.9% 상승한 2,993p로 마감했다. 강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갔다. 거래대금은 1,985억 위안으로 직전거래일보다 700억위안 늘었다. 지난 29일 저녁 시진핑 주석이 정치국 회의에서 '주식시장의 건전한 성장' 을 언급하며 시장감독 강화 및 투자자들의 수익 보호를 강조해 주식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조 변화 기대가 우세하며 투자심리가 대폭 개선됐다. 비록 4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시중 예상을 하회했으나 오히려 경기 안정화 조치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며 시장에 미친 악영향이 제한적이었다. 한편 4월 말을 지나면서 대외 불확실성 또한 악화되어 저가매수세가 유입됐다. 대부분 업종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양조, 보안장비, 음식료 등의 상승폭이 컸다. 차스닥지수는 금일 3.7% 급등한 2,217p로 마감했고 외국인들도 후구통을 통해 11억위안을 순매수했다.

홍콩H지수는 2.1% 급락,  
항공, 보험, 자동차, 시멘트 등의 업종 약세

### ■ 홍콩 시장

노동절 연휴 이후 개장한 홍콩H지수는 2.1% 급락한 8,749p로 마감했다. 노동절 연휴에 부각된 해외 악재들을 한번에 반영하면서 급락세로 출발했고 장중 부진세를 이어갔다. 연휴를 앞두고 일본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추가 통화완화정책을 발표하지 않음에 따라 엔화 강세가 지속된 것이 주요 악재로 작용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연휴에 중국 정부가 은행간 시장에서 CDS 발행 정책을 발표하면서 금융리스크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차이신 제조업 PMI도 예상을 하회하면서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매도압력이 확대됐다. 우세하며 투자심리를 약화시켰다. 모든 업종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항공, 보험, 자동차, 시멘트 등 종목들의 주가 낙폭이 컸다.

####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5/3(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2,992.64	1.85	1.56	-0.56	-15.44
심천종합	1,929.03	2.94	3.72	1.45	-16.45
차스닥	2,217.23	3.67	4.25	0.54	-18.31
홍콩H	8,748.70	-2.13	-2.64	-1.06	-9.44
Shibor 7일물 금리(% , %p)	2.34	-1.93	-1.18	0.86	-0.64
Shibor 1개월 금리(% , %p)	2.85	-0.14	0.26	1.17	-5.10
중국국채 3년물(% , %p)	2.55	0.18	1.25	10.34	-0.64
위안/달러 고시환율	6.4565	-0.04	-0.60	-0.03	-0.57
역내 위안/달러	6.4785	-0.01	0.23	0.05	0.23
역외 위안/달러	6.4880	-0.13	0.23	-0.25	1.24

주: 3일 오후 7시 22분 기준

## 시장 동향과 특징주

### 외국인과 개인 매수세로 코스피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

- 미국증시는 지난주 급락에 따른 반발매수 유입과 엔화 안정에 힘입어 나스닥 지수가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 1,980P선을 회복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기관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로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 코스닥은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기관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며 상승을 주도, 1% 이상 강세를 보이며 700P선에 바짝 다가섬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1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한 메디톡스, 바텍, 락앤락, 아모레G, 나스미디어, 모다정보통신, 아이쓰리시스템 등이 강세를 보였으며, 의료기기 국책사업인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된 다원시스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진출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병원에서 사용되는 임플란트와 외과용 수술기구, 의료장비, 각종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솔고바이오가 급등했으며, 호주 지멘스윈드파워와의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씨에스윈드가 강세를 보임.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순방을 통해 교통 인프라인 철도 부문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철도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 휴리스가 20% 가까이 급락했으며, 1분기 실적 부진에 블루콤이 하락세를 보임

종목/이슈	내용
<b>메디톡스(086900)</b> <b>▶465,000(+14.53%)</b>	<b>1분기 실적 호조에 초강세</b> - 필러 뉴라미스 수출 및 내수 고성장 등에 힘입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53%, 49%, 62%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 소식에 초강세 - 아울러 2분기에는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며, 기술료 제외 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b>다원시스(068240)</b> <b>▶27,400(+7.03%)</b>	<b>의료기기 국책사업 선정 소식에 급등세</b> - 가속기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붕소중성자포획요법인 A-BNCT(Advanced-Boron Neutron Capture Therapy)로 시술이 1시간 이내 가능한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국책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급등세 - A-BNCT는 차세대 암 치료기술로 일본에서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원리에 기초한 암 치료법임
<b>철도 관련주</b>	<b>이란 인프라투자 참여 기대감에 강세</b> - 청와대가 한국-이란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116.20억달러 규모의 철도·도로·물관리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수혜 기대감에 강세 - 대호에이엘(069460, 상한가), 삼현철강(017480, +11.69%), 대아티아이(045390, +10.03%), 특수건설(026150, +8.28%), 한국종합기술(023350, +7.45%), 리노스(039980, +4.35%) 등 강세

## 52주 신고가

종목	내용
<b>희림(037440)</b> <b>▶6,760(+12.48%)</b>	- 이란 테헤란에서 라프트리 그룹 인터내셔널과 600만달러(한화 약 68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b>연우(115960)</b> <b>▶45,050(+3.21%)</b>	- 주요 화장품 회사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과 3분기 이후 캐파 증설 효과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b>한화테크윈(012450)</b> <b>▶44,800(+2.99%)</b>	-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6.7%, 208.0% 증가하는 등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신고가 경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 유망종목: 한솔신텍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한솔신텍 (099660)	3,075 (+6.8)	2,880 (04/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부터 시작된 CFBC보일러 사업부문의 수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며 성장세 견인할 것</li> <li>- 국내에서 발전허가가 승인된 중소형 CFBC 프로젝트 중 발주가 진행된 프로젝트 100% 수주</li> <li>-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분산형 전원 비중 상향 및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는 CFBC보일러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li> </ul>
디지털대성 (068930)	3,070 (-3.2)	3,170 (0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래 업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과 M&amp;A를 통한 성장 추세 전망. 2015년에도 논술 1위 기업 한우리 인수를 통한 성장 동력 강화</li> <li>- 오프라인 및 프랜차이즈 학원, 온라인 부문 등으로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배당정책 지속</li> </ul>
엔에스 (217820)	19,650 (+7.7)	18,250 (0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정부가 환경개선, 에너지 수요 다변화를 위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는 가운데 완상, 천진 등 중국 메이저 로컬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실적 성장 기대</li> <li>- 이차전지 패키징과 디계싱공정(전지 내 생성된 가스를 상온에서 배출하여 폭발을 방지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의 일괄 수주 가능. 턴키방식의 제조설비 구축으로 기술과 가격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향 추가 수주 기대</li> </ul>
아진산업 (013310)	9,550 (+17.9)	8,100 (0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12월 현대기아차 개폐 구조물(moving parts) 신규 수주로 16년 700억원의 추가 매출 발생 예상</li> <li>- 설비증설 효과 본격화와 평균평가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li> <li>- 개폐 구조물 신규 수주, 중국 설비증설, 차체 경량화, 부품 라인업 다각화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 강화 전망</li> </ul>
브리지텍 (064480)	6,420 (+9.7)	5,850 (0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개 시중은행 중 14개를 고객사로 확보(MS 73.6%), 제1금융권 콜센터 사업영역에서 독보적 점유를 보유한 가운데 제2금융권(카드, 증권, 보험 등)으로의 매출 성장 지속 전망</li> <li>- 고객상담의 품질 향상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음성인식엔진 내재화로 경쟁력 강화 예상</li> </ul>
선창산업 (002820)	12,850 (+10.8)	11,600 (0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저가 합판제품에 대한 덤핑 관세 부과, 작년 사상최대 분양물량에 따른 착공 및 입주물량 증가세 본격화, 고부가가치 제품위주의 제품믹스 개선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 정상화 예상</li> <li>- 국내 생활용품 펌프 분야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다린' 인수, MKTI(Myanmar Korea Timber International) 인수를 통한 미얀마 시장 진출 등 사업 다각화로 장기 성장 기반 강화</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SK머티리얼즈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6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SK머티리얼즈 (036490)	118,400 (-4.5)	124,000 (04/25)	462	169	120	11,433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그룹에 편입되면서 전반적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시너지 효과 기대. 반도체 사업은 SK그룹의 핵심 육성 사업으로 수직계열화 측면에서 SK머티리얼즈의 전략적 가치 부각</li> <li>- 반도체 업체들의 지속적인 미세공정 전환과 3D NAND 투자 확대 수혜. 국내 및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의 공격적인 플렉서블OLED라인 및 대형 OLED투자로 중장기적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li> </ul>							
한섬 (020000)	42,950 (+6.4)	40,350 (04/22)	710	84	69	3,132	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및 신규 브랜드 도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현대백화점의 신규 출점 효과 등에 힘입어 외형 확대와 이익 개선세 가시화</li> <li>-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온라인, 홈쇼핑 등 판매 채널 확장으로 추가 성장여력 제고 예상</li> <li>-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저평가 상태</li> </ul>							
유한양행 (000100)	287,000 (+3.6)	277,000 (03/28)	1,247	72	116	11,337	2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저효과와 함께 전문의약품 성장과 원료의약품 수출 증가로 양호한 1분기 실적 예상</li> <li>- 유한화학(지분 100%)과 유한킴벌리(지분 30%)의 이익 턴어라운드 본격화 예상</li> <li>- 신약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R&amp;D 아웃소싱을 통한 성장 잠재력 강화와 지분가치 부각 가능성</li> </ul>							
삼성전자 (005930)	1,261,000 (+0.1)	1,260,000 (12/30)	204,975	27,248	20,882	145,233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경기 불안과 IT 수요 부진으로 2016년 1분기까지 실적 개선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핵심 경쟁력과 장기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투자매력 제고 가능성 상존</li> <li>- 지배구조 개선 기대와 배당금액 증가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정책에 따른 재평가 가능성</li> </ul>							
현대모비스 (012330)	260,000 (+5.5)	246,500 (12/30)	40,961	3,328	3,812	39,892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에는 핵심부품의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수익성을 견인할 전망.</li> <li>- 현대차그룹의 핵심부품 내재화와 친환경 부품 확대에 따른 구조적 수혜 예상</li> <li>- AS부문의 고수익성과 안정성과 기술력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li> </ul>							
더존비즈온 (012510)	25,900 (+26.3)	20,500 (12/30)	166	39	31	1,057	2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1만 중소/중견 기업과 9천여 개의 세무회계사무소를 핵심 고객으로 확보</li> <li>-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으로 클라우드 사업이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어닝 모멘텀 본격화 예상</li> <li>- 클라우드 유지 보수액은 기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대비 3배 이상 높아 향후 외형 성장을 견인할 전망</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현대모비스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김진우, CFA(jinwoo.kim@truefriend.com) ☎ 02-3276-6278

## 자동차: 4월 판매 - 부진한 판매 지속

### ■ 4월 현대/기아 공장판매량 -5.5%/-11.4%

4월 현대차와 기아차의 공장판매는 각각 5.5%, 11.4% 감소했다(표 2, 이하 모두 YoY). 국내공장 수출이 다시 감소하면서 3월 보였던 회복세가 무색해졌다. 국내공장 영업일수가 전년동월대비 3일 줄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부진한 실적이다. 먼저 내수판매에서 개별소비세 인하효과가 이어졌지만 현대차는 차종 노후화로 이를 누리지 못했다(현대/기아 -5.7%/+12.7%). 게다가 국내공장 수출이 신흥국 수요부진으로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며 판매부진을 주도했다(현대/기아 -18.9%/-25.4%). 참고로 2분기 당사 추정치 대비 4월 판매량은 현대차가 32%, 기아차 30% 수준이다.

### ■ 내수판매 - 춘추전국시대

국내에서 소비자수요가 분산되면서 한국GM(+10.2%), 쌍용차(+12.3%), 르노삼성(+21.6%)의 약진이 이어졌다. 한국GM에서는 스파크가, 쌍용차는 티볼리가, 그리고 르노삼성에서는 SM6가 각각의 호실적을 견인했다. 한편 현대차 그룹에서는 기아차의 K7, 스포티지, 니로, 모하비 등 최근 출시한 차종이 고른 강세를 보인 반면, 현대차의 그랜저, 투싼의 판매는 주춤했다.

### ■ 해외판매 - 팔 곳이 미땅치 않다

해외판매 중 해외 현지생산은 비교적 견조했으나(현대/기아 +0.2%/-6.8%) 국내공장 수출이 부진했다. 이는 기타지역(유럽/북미 제외)으로의 수출량 감소가 지속됐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참고로 현대차 1분기 기타지역 수출은 35.4% 감소하며 국내공장 수출 내 비중이 43.4%로 하락한 바 있다(-12.9%p). 기아차도 1분기 기타지역 수출이 27.1% 감소하며 국내공장 수출 내 비중이 39.2%로 하락했다(-7.4%p). 기타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중동과 남미지역의 경제 및 자동차 수요가 여전히 취약해 현대기아차의 수출부진 또는 수익성 하락이 이어질 전망이다.

### ■ 판매부진 속 배당으로 중심잡기

4월까지 누적으로 현대차는 전년동기대비 6.2% 판매가 감소했고 기아차는 7.5% 감소했다. 5월부터 현대차 아반떼, 기아차 스포티지 판매가 본격화되나 신흥국 내 수요감소가 판매에 지속적인 부담요인으로 남을 전망이다.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매크로 요인으로 판매가 부진할 때는,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배당에 주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현대차는 올해 주당 5,000원 배당을 가정 시(배당성향 20.7%) 보통주 3.5%, 2우선주는 5.1%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기아차도 2.9%의 배당수익률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주당 1,400원, 배당성향 17.6% 가정) 믹스개선으로 2분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5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통신서비스: 적정 가격에 필요 주파수만 할당, 경매 우려 해소

### ■ 주파수 경매는 과열 없이 필요한 주파수만 낙찰돼 우려 해소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경매 시작 2일만에 마무리됐다. 당초 우려와 달리 주파수 경매에 따른 불확실성이 일시에 해소됐다. 낙찰대금이 크게 줄었으며 경매 주파수가 업체별로 필요한 만큼 적절히 할당됐기 때문이다. 당초 우리는 시장 우려와 달리 과열 경쟁은 없을 것으로 보았으나 5대 대역 140MHz 대역폭을 최저경매가(2.6조원)보다 소폭 늘어난 3조원 정도에 받더라도 워낙 규모가 커서 유무형 상각비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5개 대역 중 주파수 혼선 논란이 있는 700MHz가 유찰되면서 낙찰 대금이 2조 1,106억원으로 줄었다. SK텔레콤은 2.6GHz대역 40MHz와 20MHz를 1조 2,777억원(각각 9,500억원, 3,277억원)에, KT는 1.8GHz대역 20MHz를 4,513억원에, LG유플러스는 2.1GHz대역 20MHz를 3,816억원에 낙찰 받았다.

### ■ SK텔레콤은 주파수 부족 해결, 광대역 주파수 2개 확보

SK텔레콤은 2016년말에 추가 주파수가 필요한데 금번 경매로 향후 수년간 주파수 문제가 완전 해소됐다. 2.6GHz에서 60MHz 대역폭을 확보해 연말에는 LTE 주파수가 95MHz에서 135MHz로 늘어난다. 2.1GHz 광대역 주파수 반납에도 광대역 주파수 2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6GHz 대역 2개 주파수를 동시에 받아 설비투자 구축 의무 기지국수도 19% 줄일 수 있다.

### ■ KT는 최소 비용으로 투자, LG유플러스는 광대역 주파수 2개 확보

KT는 아직 주파수 여유가 있어 3사 중 가장 적은 비용으로 낙찰 받았다. LTE 주파수가 85MHz에서 105MHz로 늘어난다. 2018년 이후 주파수 경매시 필요한 주파수를 추가로 받는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2.1GHz에서 20MHz 대역폭을 받았지만 기존 주파수 인접 대역으로 광대역 주파수로 활용할 수 있다. LTE 주파수가 80MHz에서 100MHz로 늘어난다. 이용기간이 5년으로 짧지만 광대역 주파수가 2개로 확대된다.

### ■ 유무형 상각비는 증가 예상

주파수를 신규로 받으면 2016년에 경매 대금의 25%를, 나머지 75%는 2017년부터 이용기간 중(2.1GHz 5년, 기타는 10년) 분할 납부한다. 주파수 투자는 손익에 영향을 준다. 이용기간 중에 주파수 상각비를 반영해야 하고 2019년 까지 일정 비율의 기지국을 의무적으로 구축해 유형자산 상각비가 추가된다.

### ■ 2017년 신규 주파수 상각비 비율은 LGU+ 7.1%, SKT 6.1%, KT 2% 수준

SK텔레콤은 2017년 유무형 상각비용이 1,935억원 늘어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는 2015년 상각비 대비 6.5%이며 2017년 추가 주파수를 반영한 상각비의 6.1% 수준이다. 2.6GHz 투자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KT는 2017년 유무형 상각비용이 651억원 늘어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는 2015년 상각비 대비 1.9%이며 2017년 추가 주파수를 반영한 상각비의 2.0%에 그친다. 1.8GHz 인접대역 유형자산 투자비가 소규모에 그칠 것이다. LG유플러스는 2017년 유무형 상각비용이 1,226억원 늘어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는 2015년 상각비 대비 7.6%이며 2017년 추가 주파수를 반영한 상각비의 7.1% 수준이다. 기존 2.1GHz 주파수는 핫스팟 지역만 투자가 이루어져 상각비가 신규 주파수의 투자 방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 ■ ARPU 증대, 사물인터넷 등으로 매출 늘어야 주파수 비용 만회 가능

주파수 투자가 손익에 긍정적이려면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가 유무형 상각비 증가를 웃돌아야 한다. 투자 초기부터 곧바로 반영되는 비용을 만회하려면 LTE 이용 확대에 따른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 사물인터넷 등 신사업 확대 등 매출을 늘리는 촉매제가 필요하다. 다만 우리는 3월에 주파수 경매 영향을 선반영해 이익 조정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 ■ 주파수 경매 우려 해소는 긍정적 모멘텀

통신업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긍정적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주파수 경매 우려가 해소됐다. 둘째, 이통 3사 합산 2016년 순이익은 마케팅비용 절감, 금융손익 개선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할 전망이다. 셋째, 수익 호전이 배당 증대로 이어져 배당메리트가 높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의 배당수익률은 각각 4.8%, 2.5%, 2.4%에 달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5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GS홈쇼핑(028150)

<b>매수(유지)</b>
목표가: 240,000원(유지)
종가(5/2): 184,500원

## 예상보다 빠른 회복

### ■ What's new : 1Q16 영업이익 316억원(+18.5% YoY)

GS홈쇼핑의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와 우리의 추정치를 상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8.5% 늘어난 316억원이다. 취급고는 전년동기대비 2.1% 늘어난 9,104억원으로 소폭 성장에 그쳤지만,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증가폭이 커졌다. 부문별로 보면 역성장이 지속되던 TV쇼핑 취급고가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며 2년만에 상승반전되었다. 모바일쇼핑 취급고는 마케팅 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20% 늘어난 3,054억원을 기록했으며, 상품Mix 또한 TV쇼핑 상품비중이 높아지며 전체 손익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쇼핑은 구조적 축소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1분기 취급고는 전년동기대비 24.1% 감소한 1,042억원이었다.

### ■ Positives : 당분간 지속되는 낮은 base 효과

단기적 관점에서 이익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 전년동기 영업이익의 낮은 base 영향은 3분기까지 지속되며, 높은 수준의 취급고 증가가 없더라도 비용절감만으로도 1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을 상회하는 실적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2015년 마무리되지 못한 SO수수료 협상에 따른 영향도 잔존하며, 올해 1분기 반영한 SO수수료 증가율 6.0% 또한 충분히 보수적인 수준으로 판단한다.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TV쇼핑의 취급고가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한, 올해 이익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 ■ Negatives : 의류 등 주요 상품군의 매출추이 변화는 아직

1분기 상품군별 매출추이는 의류 부진, 이미용 호조로 요약된다. 의류 매출비중은 전년동기대비 2%p 낮아진 24%에 그쳤으며, 이미용 비중은 18%로 전년동기대비 4%p 높아졌다. 수요변화에 따른 적극적 MD비중 조정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이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 매출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아직 TV쇼핑의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이른 시점으로 판단한다.

### ■ 결론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40,000원 유지

GS홈쇼핑의 1분기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으며, 단기적 관점에서 이익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 TV쇼핑 취급고 규모는 저점 통과 이후 안정적인 수준이 예상되며, 그에 따라 향후 TV쇼핑의 구조적 축소에 대한 우려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GS홈쇼핑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40,000원을 유지한다. 현재 주가는 2016F PER 11.8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주가는 2016F PER 15.5배에 해당한다.

(단위: 십억원, %, %p)

	1Q16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89	282	(2.5)	291	(10.6)	(0.5)	1,193	1,161
영업이익	29	32	10.6	29	(19.7)	18.5	124	120
영업이익률	9.9	11.2	1.3	10.0	(1.3)	1.8	10.4	10.3
세전이익	34	43	27.4	33	25.9	31.0	138	133
순이익	24	35	48.5	23	63.7	42.4	97	94

\*상기 보고서는 2016년 5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동아에스티(170900)

**중립(유지)**

종가(5/2): 136,000원

### 수출은 좋지만 내수 턱어라운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듯

#### ■ What's new :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는 1분기 실적 발표

동아에스티는 16년 1분기 매출액 1,469억원(+5.3% YoY), 영업이익 117억원(-8.5% YoY)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였다. ETC(전문의약품) 사업부가 매출액 78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5% 감소한 반면 수출은 447억원으로 46.7% 증가하며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원가율은 1.6%p 감소하였지만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와 연구개발비 20% 증가(26억원 순증)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1.2%p 하락하였다.

#### ■ Positives : 수출 성장과 신약개발 성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1분기 실적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해외사업부 고성장과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이다. 수출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박카스가 208억원(+47% YoY)으로 분기 수출 200억원을 넘어섰으며, 공장 이전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던 그로트로핀(인성항호르몬) 수출이 113억원으로 118%나 증가하였다. 박카스는 올해 대만에 신규로 런칭하였고, 미안마와 파테말라에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수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의약품 매출 성장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약후보물질들의 임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동아에스티는 당뇨치료제 ‘에보글립틴(성분명)’을 미국 토비라사에 705억원 규모로 기술이전하였고, 이 약물은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치료제로 개발될 예정이다. DA-9801(천연물신약)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올해 하반기 미국 임상 3상 승인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DA-3880(바이오시밀러, 빈혈치료제)도 하반기 유럽 임상3상 승인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글로벌 허가를 완료한 항생제 ‘시백스트로’ 역시 매출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 Negatives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

반면 내수 전문의약품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하였다. 자이데나가 자율적으로 약가인하를 진행하고, GSK 도입품목의 매출 감소, 그리고 전반적인 제네릭 품목의 매출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절염치료제 ‘아셀렉스’, 당뇨치료제 ‘슈가논’, 골다공증치료제 등 신제품 출시 효과로 2분기 이후 전문의약품 사업부의 매출 턱어라운드가 가능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결론 : 투자의견 중립 유지

수출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나 전문의약품 사업부 턱어라운드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파이프라인 DA-9801과 DA-3880의 임상 3상 진입이 하반기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1Q16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46	147	0.3	146	4.9	5.3	610	601
영업이익	13	12	(9.1)	14	14.1	(8.5)	61	61
영업이익률	8.8	8.0	(0.8)	9.3	0.6	(1.2)	10.0	10.1
세전이익	12	6	(49.2)	12	(70.6)	(48.8)	62	58
순이익	9	4	(50.0)	10	(72.6)	(48.6)	47	44

\*상기 보고서는 2016년 5월 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메디톡스(086900)

**매수(유지)**

목표가: 580,000원(유지)

종가(5/2): 406,000원

### 보톡스와 필러 수출 모멘텀 강하다

#### ■ What's new :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 발표

메디톡스는 16년 1분기 매출액 288억원(+53% YoY), 영업이익 166억원(+48.9% YoY)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였다. 기술료를 포함한 내수 매출액은 1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반면 수출규모는 170억원으로 전년 동기 89억원 대비 9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뉴라미스(필러)는 1Q15 40억원에서 1Q16 102억원으로 155% 증가하였다. 수출 지역별로는 아시아 147억원(+110% YoY), 동유럽 4억원(+41% YoY), 중남미 및 기타 19억원(+15.7% YoY)로 아시아 지역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필러 비중 확대로 원가율은 3%p 증가하였으나 매출증가로 인한 비용부담 완화 효과로 영업이익률은 1%p 하락에 그쳤다.

#### ■ Positives : 필러와 보톡스 수출 전망 매우 밝음

메디톡스의 16년 1분기 실적에서 주목할 점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는 점과 보톡스와 필러 수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 영업일수가 적고 겨울방학이 끝나는 시즌인 1분기는 분기중 가장 낮은 실적을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는 이번 1분기 4Q15에 비하여 매출액 증가율 16%, 영업이익 증가율 18%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였고, 올해 의미있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수 보톡스 매출은 0.8% 감소한 것에 비해 보톡스 수출은 38% 증가율을 보였으며, 필러의 매출이 155%, 필러와 보톡스를 포함한 전체 아시아 수출이 110% 증가한 것을 볼 때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필러와 보톡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매우 견고하다고 판단된다.

#### ■ Negatives : 차세대 보톡스 '이노톡스'의 미국 임상 3상 진입이 중요

반면 '이노톡스' 미국 임상 3상 진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공장에 대한 validation과 미국 임상 3상 승인신청이 지연되면서 가장 큰 미국시장 진출에 있어 경쟁사(휴젤, 대웅제약) 대비 시장 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앨러간 파이프라인에서 이노톡스의 중요도가 후순위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노톡스의 미국 임상3상 진입은 올해 동사 주가 흐름에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 ■ 결론 :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

미국 임상 3상 진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연초 이후 계속된 주가 조정에 이미 반영된 이벤트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 제약 바이오 조정에 따른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며,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8만원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1Q16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6	29	9.6	25	15.9	53.0	115	110
영업이익	16	17	3.5	14	18.2	48.9	68	63
영업이익률	60.9	57.6	(3.4)	57.0	1.1	(1.6)	58.9	57.0
세전이익	16	17	4.7	14	20.8	58.8	67	63
순이익	13	14	7.0	12	20.2	61.7	54	190

\*상기 보고서는 2016년 5월 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모두투어(080160)

<b>매수(유지)</b>
목표가: 36,000원(유지)
종가(5/2): 29,000원

## 알찬 실적

### ■ What's new :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95억원(+18.2% YoY), 45억원(-27.9% YoY)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7.4% 상회했다. 별도 실적은 매출액은 송출객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한 531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비용 부담 증가로 65억원으로 8.8% 감소했다.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증가분(약 5억원)과 기본 급여 증가 등으로 별도 인건비가 15.1% 늘었고 수요가 부진한 지역에 대한 심리 회복을 위한 광고 집행으로 광고 선전비가 36억원으로 95% 증가했기 때문이다.

### ■ Positives : 송출객수 성장 지속, ASP 하락폭 축소

패키지와 티켓 송출객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6.3%, 46.1 증가해 외형 확대를 지속했다.전체 송출객수는 18.8% 증가해 1분기 시장점유율은 11.2%로 동일했다. 1분기 ASP(평균판매가격)는 전년동기대비 1.7% 하락한 859,739원을 기록했다. 작년 ASP가 유류할증료 하락과 지역별 믹스 변화 등으로 전년대비 13% 하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ASP 하락세 축소는 외형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 ■ Negatives : 연결대상 자회사 영업적자 지속

연결대상 7개 자회사의 합산 영업손실은 20억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자회사별 영업손실은 자유투어(2Q15부터 연결계상)가 10억원, 서울호텔학교가 7억원, 모두스테이가 2억원, 모두관광개발 2억원 순이었다(표4). 자유투어는 패키지 인원이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하는 등 외형 확대를 지속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적자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스테이는 1분기 중에 동탄에 스타즈 3호점이 개관함에 따라 초기 비용 등으로 소폭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2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 ■ 결론 : 성과 확대 지속 예상, 매수 의견 유지

모두투어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36,000원(12개월 forward PER 20배 적용)을 유지한다. 4월 패키지 성장률(+4.2% YoY)과 예약률(5월: -3.8%, 6월 +21.5%, 7월 +25.2%)을 감안할 때, 2분기에도 외형 성장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지진 등 부정적 외부 여건에도 불구하고 5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연휴, 6월 현충일 연휴 등으로 꾸준한 여행 수요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메르스 기저효과가 본격화되고 최근 비용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인건비, 광고비 등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돼 이익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기대된다.

(단위: 십억원, %, %p)

	1Q16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58	60	2.1	57	12.5	18.2	233	229
영업이익	4	5	17.2	4	164.0	(27.9)	21	22
영업이익률	6.6	7.6	1.0	7.4	4.3	(4.8)	9.2	9.6
세전이익	5	5	5.4	5	3598.2	(29.5)	23	24
순이익	4	4	3.8	4	흑전	(30.6)	18	18

\*상기 보고서는 2016년 5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아모레G(002790)

<b>매수(유지)</b>
목표가: 200,000원(상향)
종가(5/2): 165,000원

## 글로벌 이니스프리, 다양한 포트폴리오 잠재력 확인

### ■ What's new : 영업이익 컨센서스 11% 상회, 주요 자회사 실적 모두 예상 상회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1,790억원, 영업이익은 31% 급증한 4,190억원(영업이익률 23.5%)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우리 예상과 컨센서스를 약 10% 상회했는데 아모레퍼시픽(090430, 매수/TP 500,000원)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2% 증가한 3,380억원으로 호조였고, 이니스프리 영업이익이 519억원으로 전년대비 47% 급증했다. 그 외 중저가 로드숍 브랜드인 에뛰드가 영업이익 120억원을 기록하며 턴어라운드 성공했고 헤어케어 브랜드인 아모스프로페셔널과 메이크업 브랜드 에스쁘아와의 양호한 실적 개선이 돋보였다. 의약 화장품 에스트라는 매출 성장률이 37%에 달해 높은 성장이 가시화되었다.

### ■ Positives : 글로벌 이니스프리, 에뛰드 턴어라운드, 숨겨진 보물들

동사에 대한 투자 매력은 아모레퍼시픽 호조 외에도 그 외 뷰티 관련 자회사들의 성장 잠재력이다. 대표적으로 이니스프리의 금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7,40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1,66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영업이익 추정치는 기존보다 14% 상향되었다. 이니스프리는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면세점과 온라인 위주의 고성장과 기존점 성장, 수출 및 해외 로열티 증가가 예상된다. 면세점의 경우 히트 브랜드들이 50개 내외 면세 카운터를 보유한 반면 동사는 28개로 추가 출점 여력이 있다. 또한 이니스프리의 금년 중국 매출액은 약 4,500억으로 전년대비 약 70% 성장할 전망이다. 동남아에서도 고성장,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다. 해외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과 로열티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사업이 성장할수록 한국에서의 가격 메리트 부각으로 내수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 외 2014년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해온 에뛰드 브랜드의 턴어라운드, 프리미엄 헤어 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ODM/보톡스, 필러/의약 화장품 매출 호조는 뷰티 산업 고도화에 대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강점과 성장 잠재력을 시사한다.

### ■ Negatives : 높은 밸류에이션, 성장으로 부담 완화될 것

2016년, 2017년 PER이 34배, 27배에 달해 글로벌 업체들보다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까지 연평균 EPS 성장률은 33%로 대형 브랜드 업체 중 월등하며 목표가 기준 PER은 2018년 기준 27배로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 ■ 결론 : 자회사 실적 호조 반영, 목표주가 200,000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185,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상향한다 (SOTP, 2016년 내재 PER 41배). 이니스프리 실적 호조를 반영, 이니스프리 가치를 기존 3.4조원에서 4.2조원으로 상향했으며 에뛰드, 아모스프로페셔널 등 실적 소폭 상향으로 이니스프리 외 계열사 가치를 기존 1.8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했다.

(단위: 십억원, %, %p)

	1Q16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729	1,759	1.8	1,684	20.7	21.8	6,865	6,821
영업이익	384	419	9.1	377	160.3	30.7	1,260	1,159
영업이익률	22.2	23.8	1.6	22.4	12.8	1.6	18.4	17.0
세전이익	393	427	8.8	387	201.6	30.7	1,273	1,190
순이익	127	136	7.1	117	231.1	43.1	389	347

\*상기 보고서는 2016년 5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아모레퍼시픽(090430)

<b>매수(유지)</b>
목표가: 500,000원(유지)
종가(5/2): 411,000원

##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 ■ What's new : 성수기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기록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1.49조원, 영업이익은 22% 증가한 3,379억원(영업이익률 22.7%)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국내 화장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9,440억원(+19% YoY)과 2,480억원(+23% YoY, 영업이익률 26.3%)을 기록, 해외 화장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4,080억원(+46% YoY), 790억원(+37% YoY, 영업이익률 19.5%), 국내 생활용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420억원(+1.9% YoY), 200억원(-5.1% YoY, 영업이익률 14.3%)을 시현했다.

### ■ Positives : 관전 포인트 충족, 면세점과 해외 매출 50%대 성장

대중국 매출이 주인 면세점은 전년대비 57% 급증했고, 해외 매출액에서 아시아가 50% 증가, 이 중 중국과 동남아 매출액은 전년대비 60% 내외 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면세점 호조는 1)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20% YoY), 2) 고가인 설화수와 헤라 브랜드 비중 확대에 의한 단가 상승 효과, 3) 해외 면세점 호조로 요약된다. 중국 사업은 1)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고성장군(이니스프리+설화수+에뛰드)으로 재편, '이니스프리'는 90% 이상 성장하며 매출 비중은 40%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설화수'와 '에뛰드'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각각 100% 이상 성장하며 매출 비중도 10%, 5% 내외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매출 비중의 약 40%를 차지하는 성숙 브랜드인 '라네즈'와 '마몽드'도 10% 이상 성장했다. 면세점은 2분기부터 본격적인 인바운드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며 해외 화장품은 고성장 브랜드들의 출점과 기존점 매출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 ■ Negatives : 실적 호조에 무너지는センチメント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실적 상향 가능 여부와 적정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진행형이다. 2016, 2017년 PER은 각각 35배, 29배로 일본업체 및 글로벌 상위업체 평균 28배, 25배에 비해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적 상향보다 절대적인 실적 우위 지속에 무게를 둔다. 글로벌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2014~2015년 성장과 점유율 상승이 대부분 일단락 된 반면 동사의 점유율 상승은 오히려 가파르다. 글로벌 화장품 업체 중 점유율 상승이 가장 빠르며 2015년 점유율은 1.9%에 불과, 2020년 5%대 점유율 달성시 중국에서만 약 4조원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 ■ 결론 : 성장하는 시장에서 경쟁 우위 확보, 업종 내 Top pick 유지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00,000원(FY16F PER 43배)을 유지한다. 2018년까지 EPS 연평균 성장률은 29%로 목표 주가 기준 PER은 2018년 28배로 하락한다.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 시장 재편 과정에서 빠른 주도권 확보, 글로벌 사업으로의 확장이 긍정적이다.

(단위: 십억원, %, %p)

	1Q16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441	1,485	3.0	1,424	21.2	23.3	5,814	5,752
영업이익	326	338	3.5	318	173.7	21.5	1,043	974
영업이익률	22.6	22.7	0.1	22.3	12.7	(0.3)	17.9	16.9
세전이익	333	346	3.8	321	223.4	22.9	1,063	991
순이익	247	259	4.8	243	268.0	24.6	795	735

\*상기 보고서는 2016년 5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아진산업(013310)

<b>매수(신규)</b>
목표가: 15,000원
종가(5/2): 9,900원

## 빨라지는 성장 속도

### ■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5,000원 제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5,000원으로 분석을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EPS에 목표 PER 6.5배(업종 평균 15% 할인)를 적용해 산출했다.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현대기아차의 국내외 신차 출시와 개폐 구조물 아웃소싱으로 수주 모멘텀이 커지고, 2) ASP가 3.5배 높은 대물 프레스 비중이 높아져 제품 mix가 개선되며, 3) 17년부터 중국 capa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15~17년 순이익은 연평균 35.2% 늘어 고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 신규 수주와 제품 mix 개선 콤비

16년 아진산업이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의 국내 신차 생산은 전년 대비 104.2%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신차 생산 계획의 50.7%를 차지하는 아반떼는 15년 10월 국내, 16년 2월 미국에 출시돼 16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아반떼를 시작으로 대물 프레스 비중이 늘고 있어 외형 성장과 동시에 마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현대기아차가 직접 생산하던 개폐 구조물도 신규로 수주했다. 16년에 싼타페 15만대, K5 14만대를 확정 받아 약 720억원의 매출이 보장된 상황이다.

### ■ 1분기는 시작, 계단식 이익 증가 예상

16년 매출액, 영업이익은 국내외 신차 출시 효과와 개폐 구조물 신규 수주에 힘입어 전년 대비 각각 34.8%, 32.6% 늘어날 전망이다. 단가인하 압력에 따른 마진 하락 우려가 크지만 대물 프레스 비중 확대와 가동률 상승으로 이익률 방어가 가능할 것이다. 16년 영업이익률은 9.8%로 전년 대비 0.2%p 하락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동종 업체 대비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16년 PER은 4.5배로 저평가되어 있다. 1분기를 시작으로 갈수록 수주 모멘텀이 커지며 이익이 계단식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으로 매수할 구간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296	27	14	1,784	110.4	51	NM	4.3	NM	23.3	-
2015A	338	34	18	2,193	22.9	63	3.1	4.8	0.8	19.9	-
2016F	455	45	26	2,099	(4.3)	84	4.5	4.7	0.8	20.4	-
2017F	549	53	32	2,563	22.1	99	3.7	4.2	0.7	19.8	-
2018F	637	56	35	2,811	9.7	110	3.4	3.7	0.5	17.6	-

\*상기 보고서는 2016년 5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하나투어(039130)

<b>매수(유지)</b>
목표가: 120,000원(유지)
종가(5/2): 89,700원

## 본업 성과 확대는 지속 vs. 면세점 적자와 일회성 비용

### ■ What's new : 일회성 비용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 37% 하회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90억원(+26.1% YoY), 96억원(-43% YoY)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우리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각각 25.9%, 36.7% 하회했다. 별도 실적과 및 SM면세점 등 자회사의 세부 실적은 5월 중순 발표될 분기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내 면세점 초기 판매 부진으로 매출액이 예상보다 낮았고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금이 발생돼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50억원(+8.3% YoY), 117억원(-13.2% YoY)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Positives : 견조한 송출객수 증가율, 점유율 상승세, 일본 자회사 성과 호조

1분기 패키지 및 티켓 송출객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7.1%, 23.1% 증가했다.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시장 성장률(승무원 제외)이 18.9%에 달했는데 하나투어의 전체 송출객수는 25.9% 증가해 이를 상회했다. 시장점유율은 23.1%로 전년동기대비 1.3%p 상승했다. 1분기에도 일본행 여행객수가 시장 성장을 주도해 일본 자회사(하나투어캐뎃, 유아이버스, 스타샵 등)의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27%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 ■ Negatives : 면세점 적자와 예상치 못한 국세청 추징금 반영

SM면세점의 총매출액, 매출액은 각각 321억원, 24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손실은 67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 시내점은 1월 29일 임시오픈으로 영업을 개시했는데 초기 판매 부진으로 매출액은 낮았지만 영업적자 규모는 마케팅 집행이 예상보다 적어 시장 예상치 수준이었다. 공항 면세점은 소폭이나마 흑자(2억원 추정)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투어는 작년 말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추징금을 부과받아 판매관리비 계정에 해당되는 세금과공과 비용이 크게 늘면서 수익성이 크게 부진했다.

### ■ 결론 : 본업은 양호, 매수 의견 유지

하나투어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12만원(12개월 forward PER 25배 적용)을 유지한다. 잠정실적을 통해 추정컨대 본업은 견조한 외형과 이익 성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4월 패키지 송출객수 증가율이 26%에 달했고, 5월 예약률(5월: -3.5%, 6월 +13.4%, 7월 +17.2%)은 소폭 감소에 머물러 있지만 전년동기 황금연휴로 기저 부담이 있고, 전월 발생한 일본 지진으로 일본 구마모토 지역 여행을 일괄 취소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해외여행에 대한 내국인 수요 자체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면세점 적자는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4월 29일 그랜드오픈 이후 일매출 등이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이익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위: 십억원, %, %p)

	1Q16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65	149	(9.8)	167	19.3	26.1	702	732
영업이익	12	10	(22.0)	14	4.7	(43.0)	54	62
영업이익률	7.5	6.4	(1.0)	8.6	(0.9)	(7.8)	7.8	8.4
세전이익	14	9	(31.6)	16	(9.7)	(47.0)	61	66
순이익	9	4	(60.0)	11	(42.9)	(68.8)	42	46

\*상기 보고서는 2016년 5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한화테크윈(012450)

**매수(유지)**

목표가: 57,000원(상향)

종가(5/2): 43,500원

### 강화된 기초체력

#### ■ What's new : 영업이익, 컨센서스 큰 폭으로 상회

한화테크윈의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와 우리 추정치를 크게 상회했다. 매출액은 6,42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7%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전년도 103억원 보다 208% 증가한 317억원(영업이익률 4.9%)을 기록했다. 1분기에는 특별한 일회성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전 사업부에 걸쳐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났으며, SS(Security Solution, CCTV), PS(Power System, 항공엔진, 압축기 등) 사업부에서는 우호적인 환율도 수익성 개선을 견인했다. 영업외부문에서는 한국항공우주(KAI) 지분 4% 매각차익 2,175억원을 인식해 지배주주순이익은 1,961억원을 기록했다.

#### ■ Positives : 영업이익률 4.9%

영업이익률이 4.9%로 전년동기대비 3.2%p, 전분기대비 6.9%p 상승했다. 지난해 6월말 한화그룹으로 편입된 이후 빠르게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 1분기에는 전년도 연간 약 1,300억원 발생했던 직간접적인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도 1분기에 1,200원으로 전년동기 1,100원 대비 우호적이었다. 수주잔고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PS(항공엔진 등)와 DS(지상 방산)는 하반기에도 견조한 수익성을 이어갈 것이다. 특히 DS는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좋은 K9자주포 폴란드 수출이 매출로 인식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분기 수익 추정 가시성이 떨어지는 SS(CCTV)와 IMS(칩마운터)의 연간 영업이익률을 1분기보다 낮게 추정해도, 전사 연간 영업이익률 4.5%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 ■ Negatives : PS에 속한 에너지 사업부(압축기) 매출액 감소

PS에 속한 에너지부문(압축기) 매출액이 전방산업 부진으로 전년도 434억원에서 357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인력 구조조정(압축기 부문 일부 인원을 엔진 부문으로 재배치) 단행과 선별적 수주를 통해 영업적자는 15억원으로 전년동기 약 50억원에서 크게 축소됐다.

#### ■ 결론 : 목표주가를 57,000원으로 10% 상향

목표주가를 57,000원으로 10% 상향한다. 예상보다 빠른 비용절감 효과를 반영해 2016년, 2017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25.8%, 7% 상향했고 SOTP를 이용해 산출했다. 올해는 전년도의 일회성비용(약 1,300억원)이 사라지고 원가절감 노력 효과가 나타나 전 사업부에 걸쳐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합리적인 가격에 두산DST 인수에 성공했고 3분기에는 한화탈레스 지분 추가 인수(탈레스측 지분 50%) 관련 옵션 행사기간도 도래한다. 국내 방위산업에서 한화테크윈을 포함한 한화 그룹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단위: 십억원, %, %p)

	1Q16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615	643	4.5	633	(15.0)	6.7	2,668	2,804
영업이익	13	32	144.1	14	NA	208.0	119	87
영업이익률	2.1	4.9	2.8	2.2	6.9	3.2	4.5	3.1
세전이익	254	253	(0.5)	NA	NA	1,066.8	347	144
순이익	187	196	4.9	68	19,586.4	978.1	269	113

\*상기 보고서는 2016년 5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4/27(수)	4/28(목)	4/29(금)	5/2(월)	5/3(화)	
유 가 증 권	종합주가지수	2,015.40	2,000.93	1,994.15	1978.15	1986.41	
	등락폭	-4.23	-14.47	-6.78	-16	8.26	
	등락종목	상승(상한)	305(0)	377(2)	339(0)	200(0)	501(1)
		하락(하한)	490(0)	427(0)	457(0)	617(0)	287(0)
	ADR	101.19	98.81	97.48	93.81	95.90	
	이격도	10 일	100.05	99.40	99.17	98.53	99.06
		20 일	100.96	100.23	99.90	99.09	99.48
	투자심리	40	30	30	30	30	
	거래량	(백만 주)	413	341	395	328	308
	거래대금	(십억 원)	5,398	5,461	4,914	3,879	3,744
코 스 닥	코스닥지수	699.52	699.7	699.77	690.27	698.66	
	등락폭	-2.54	0.18	0.07	-9.5	8.39	
	등락종목	상승(상한)	423(3)	539(2)	434(4)	273(3)	691(2)
		하락(하한)	627(0)	507(0)	615(0)	801(1)	360(0)
	ADR	103.41	103.41	103.40	101.99	103.22	
	이격도	10 일	99.99	99.93	99.88	98.59	99.83
		20 일	100.41	100.37	100.30	98.94	100.13
	투자심리	5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757	665	635	681	809
	거래대금	(십억원)	3,646	3,441	3,132	3,481	3,564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 가 증 권	매수	1,923.0	1,041.2	745.4	133.1	114.6	153.0	88.6	8.8	247.3	43.6
	매도	1,854.6	954.4	923.4	398.1	100.2	155.0	65.7	12.7	191.7	20.9
	순매수	<b>68.5</b>	<b>86.8</b>	<b>-178.0</b>	<b>-265.0</b>	<b>14.4</b>	<b>-2.0</b>	<b>22.9</b>	<b>-3.9</b>	<b>55.6</b>	<b>22.7</b>
	5월 누계	<b>248.8</b>	<b>55.1</b>	<b>-355.7</b>	<b>-409.9</b>	<b>10.9</b>	<b>-12.3</b>	<b>21.2</b>	<b>-5.8</b>	<b>40.1</b>	<b>51.8</b>
	16년 누계	-2,334.4	2,729.2	-571.7	-362.0	2,494.7	-1,427.3	-1,120.5	-385.7	229.4	176.8
코 스 닥	매수	3,194.9	234.1	133.8	29.6	14.1	33.4	23.3	1.4	32.0	18.3
	매도	3,260.6	176.0	109.5	31.9	13.2	32.4	6.8	1.4	23.9	35.0
	순매수	<b>-65.8</b>	<b>58.2</b>	<b>24.3</b>	<b>-2.3</b>	<b>0.8</b>	<b>1.1</b>	<b>16.5</b>	<b>0.0</b>	<b>8.1</b>	<b>-16.7</b>
	5월 누계	<b>9.7</b>	<b>4.8</b>	<b>11.0</b>	<b>-4.3</b>	<b>0.5</b>	<b>8.9</b>	<b>7.4</b>	<b>-0.1</b>	<b>-1.5</b>	<b>-25.5</b>
	16년 누계	2,567.1	302.8	-2,143.1	-266.5	-143.9	-680.3	-250.2	-104.6	-697.7	-726.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8,700	미분류 -17,477
운수장비	2,294	유통업 -5,360
전기전자	2,177	화학 -5,090
KT	8,602	KODEX 200 -7,863
삼성전자	4,529	NAVER -7,654
엔씨소프트	3,649	TIGER 200 -6,930
GS건설	3,589	이마트 -2,776
OCI	3,376	롯데케미칼 -2,737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11,788	철강금속 -7,257
통신업	5,654	전기전자 -7,146
화학	3,856	건설업 -7,130
SK이노베이션	3,117	POSCO -6,092
삼성에스디에스	2,908	삼성전자 -5,739
KT	2,874	대림산업 -3,752
SK텔레콤	2,594	LG화학 -3,218
기아차	2,253	LG디스플레이 -3,03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551	전기전자 -1,938
서비스업	489	통신업 -1,072
은행	246	운수창고 -650
KODEX 레버리지	1,848	대한전선 -1,304
이마트	987	TIGER 경기방어 -1,179
NAVER	641	아모레G -899
한화테크윈	292	KT -889
POSCO	275	SKC -85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16,991	화학 -6,756
통신업	6,243	기타금융업 -5,010
전기전자	5,998	운수창고 -1,031
KODEX 200	9,929	롯데케미칼 -4,230
SK텔레콤	6,760	BNK금융지주 -2,877
기아차	4,733	LG -2,805
TIGER 200	4,703	LG유플러스 -2,533
삼성전자	3,770	현대건설 -2,262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21,285	전기전자 -59,940
기계	2,801	화학 -27,533
미분류	1,547	운수장비 -21,645
KT	17,108	삼성전자 -51,947
KODEX 인버스	15,001	현대차 -15,796
한화테크윈	10,232	POSCO -13,643
OCI	9,782	NAVER -12,152
SK텔레콤	7,528	LG화학 -10,692
SK이노베이션	6,275	롯데케미칼 -9,889
GS건설	5,957	현대건설 -8,237
LG전자	4,899	삼성SDI -7,136
하나투어	4,844	삼성물산 -6,632
락앤락	4,526	BNK금융지주 -6,193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35,224	유통업 -7,688
전기전자	27,967	보험업 -7,281
화학	18,198	전기가스 -5,397
삼성전자	44,354	SK하이닉스 -11,291
아모레퍼시픽	22,672	LG화학 -9,929
NAVER	14,480	삼성물산 -9,272
POSCO	13,504	SK이노베이션 -7,809
아모레G	12,930	호텔신라 -7,174
현대모비스	7,894	삼성전기 -6,567
삼성SDI	7,847	삼성중공업 -5,871
우리은행	6,455	기업은행 -5,695
CJ대한통운	6,183	BNK금융지주 -4,843
이마트	5,641	대우건설 -4,777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2,855	반도체	-2,352
일반전기전자	908	통신장비	-2,246
음식료,담배	859	소프트웨어	-966
CJ E&M	3,055	아이엠텍	-2,239
메디톡스	2,045	오스템임플란트	-1,509
인바디	1,352	메디포스트	-1,058
큐리언트	685	연우	-789
아이쓰리시스템	632	CJ프레시웨이	-772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377	IT부품	-528
반도체	360	도매	-194
소프트웨어	38	방송서비스	-116
인트론바이오	311	나무가	-578
원익홀딩스	307	메디프론	-192
아이원스	109	CJ E&M	-117
엘비세미콘	62	오스템임플란트	-95
메디톡스	56	제닉	-93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11,865	통신장비	-6,801
제약	8,717	반도체	-4,321
의료,정밀기기	2,617	기계,장비	-2,190
CJ E&M	12,964	아이엠텍	-7,172
메디톡스	10,126	오스템임플란트	-2,707
인바디	3,961	메디포스트	-2,021
매일유업	1,909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263
카카오	1,700	원익홀딩스	-1,251
이오테크닉스	1,321	아미코젠	-1,091
모두투어	1,250	한일진공	-1,068
로엔	1,198	동진썬미켐	-1,062
이지바이오	1,196	테라세미콘	-1,008
삼천리자전거	1,145	나무가	-864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1,309	통신장비	-1,951
반도체	847	금속	-434
화학	422	오락,문화	-433
CJ E&M	1,941	아이엠텍	-1,826
매일유업	1,110	오스템임플란트	-918
인바디	718	메디톡스	-576
셀트리온	687	녹십자셀	-507
네오팜	658	아미코젠	-462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11,865	통신장비	-6,801
제약	8,717	반도체	-4,321
의료,정밀기기	2,617	기계,장비	-2,190
CJ E&M	12,964	아이엠텍	-7,172
메디톡스	10,126	오스템임플란트	-2,707
인바디	3,961	메디포스트	-2,021
매일유업	1,909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263
카카오	1,700	원익홀딩스	-1,251
이오테크닉스	1,321	아미코젠	-1,091
모두투어	1,250	한일진공	-1,068
로엔	1,198	동진썬미켐	-1,062
이지바이오	1,196	테라세미콘	-1,008
삼천리자전거	1,145	나무가	-864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8,530	비금속	-1,715
의료,정밀기기	7,955	인터넷	-1,702
반도체	6,595	금속	-1,186
메디톡스	12,337	셀트리온	-10,303
CJ E&M	7,795	카카오	-2,000
뉴트리바이오텍	3,087	보성파워텍	-1,961
연우	3,068	유진기업	-1,879
바텍	2,461	크루셜텍	-1,701
컴투스	2,151	젬백스테크놀로지	-1,593
원익홀딩스	2,076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1,467
바이로메드	2,037	셀트리온제약	-1,434
아프리카TV	1,923	옵시스시스템	-1,298
파라다이스	1,858	실리콘웍스	-1,16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경동가스	40 일	풍산	60 일
SK증권	35 일	한솔제지	52 일
TIGER 원유선물(H)	18 일	고려아연	39 일
조선선재	13 일	애경유화	27 일
풀무원	12 일	대덕GDS	25 일
롯데푸드	12 일	세아제강	23 일
현대백화점	11 일	삼천리	20 일
OCI	11 일	삼성SDI	18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세코닉스	11 일	나이스정보통신	50 일
한양디지텍	10 일	동국산업	19 일
컴투스	10 일	아이센스	13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10 일	대호피앤씨	12 일
삼화네트웍스	10 일	넥스트아이	11 일
메지온	9 일	인포뱅크	10 일
신화인터텍	9 일	원하이텍	9 일
싸이맥스	8 일	농우바이오	9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인버스	97,311	KODEX 200	142,467
GS건설	69,892	TIGER 200	63,565
OCI	37,078	삼성SDI	51,729
KT	34,831	NAVER	50,649
현대제철	32,476	아모레퍼시픽	38,228
GKL	23,793	호텔신라	35,894
두산중공업	21,642	우리은행	33,613
호텔신라	19,680	만도	31,364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 E&M	15,656	컴투스	8,793
AP시스템	8,555	KG이니시스	7,706
메디톡스	6,634	디오	6,681
파라다이스	6,153	연우	5,544
토탈	5,024	CJ E&M	5,130
컴투스	4,687	동아엘텍	4,914
이오테크닉스	3,756	지스마트글로벌	4,458
이지바이오	3,674	휴젤	4,271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통신업		21,285	8,924 30,209
미분류		1,547	8,287 9,834
음식료		1,337	5,236 6,573
SK텔레콤		7,528	5,344 12,873
CJ대한통운		1,895	6,183 8,078
하나투어		4,844	2,213 7,057
엔씨소프트		4,524	1,880 6,404
이마트		644	5,641 6,285
CJ		488	5,004 5,492
락앤락		4,526	362 4,887
삼립식품		1,413	3,225 4,639
S-Oil		1,026	2,705 3,731
TIGER 차이나A레버리지(합성)		1,823	1,042 2,866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방송서비스		11,865	8,530 20,395
제약		8,717	6,219 14,936
의료,정밀기기		2,617	7,955 10,572
메디톡스		10,126	12,337 22,463
CJ E&M		12,964	7,795 20,759
인바디		3,961	1,073 5,035
바텍		1,068	2,461 3,529
뉴트리바이오텍		59	3,087 3,146
이오테크닉스		1,321	1,663 2,983
컴투스		799	2,151 2,950
파라다이스		329	1,858 2,187
로엔		1,198	824 2,022
디오		45	1,705 1,751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대한전선	26 일	대성합동지주	35 일	
에스코	23 일	동일제지	26 일	
하이스틸	20 일	대원강업	25 일	
황금에스티	20 일	빙그레	21 일	
우성사료	20 일	퍼시스	20 일	
원림	20 일	대성에너지	18 일	
한미약품	19 일	S&T모티브	18 일	
무림P&P	19 일	고려산업	1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유니크	27 일	KB오토시스	29 일	
나이스정보통신	25 일	텔레칩스	21 일	
에스앤씨엔진그룹	21 일	웨이브일렉트로	16 일	
한창산업	19 일	동원개발	16 일	
경남스틸	19 일	나노신소재	15 일	
리드코프	19 일	한컴지엠디	15 일	
한일화학	19 일	와이비엠넷	15 일	
대양제지	19 일	한타	15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89,440	삼성물산	-69,930	
KODEX 200	-152,993	한미약품	-32,591	
삼성물산	-100,894	LG전자	-32,068	
KODEX 레버리지	-78,652	삼성전기	-26,150	
TIGER 200	-64,959	현대차	-25,806	
한미약품	-49,251	LG디스플레이	-22,438	
현대차	-45,680	LG이노텍	-20,148	
POSCO	-44,904	GKL	-20,121	

	KOSDA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제약	-22,144	셀트리온	-56,982	
오스템임플란트	-9,432	카카오	-4,944	
원익홀딩스	-8,129	이지바이오	-4,427	
한일진공	-7,043	바이로메드	-4,276	
파트론	-6,825	인바디	-3,901	
코나아이	-6,191	유진기업	-3,736	
씨젠	-5,589	크루셜텍	-2,642	
SK머티리얼즈	-5,371	웨이브일렉트로	-2,600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59,940	27,967	-31,973
유통업	-17,818	-7,688	-25,506
운수장비	-21,645	2,257	-19,388
LG화학	-10,692	-9,929	-20,622
삼성물산	-6,632	-9,272	-15,905
SK하이닉스	-1,065	-11,291	-12,356
BNK금융지주	-6,193	-4,843	-11,035
현대건설	-8,237	-908	-9,145
삼성전기	-2,419	-6,567	-8,986
삼성중공업	-2,030	-5,871	-7,901
SK	-5,352	-2,389	-7,740
대우건설	-2,053	-4,777	-6,830
KCC	-2,977	-3,545	-6,522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통신장비	-6,801	2,045	-4,756
비금속	-704	-1,715	-2,419
미분류	-802	-181	-983
아이엠텍	-7,172	-226	-7,398
오스템임플란트	-2,707	-37	-2,744
메디포스트	-2,021	-128	-2,149
유진기업	-124	-1,879	-2,002
셀트리온제약	-108	-1,434	-1,542
옵니시스템	0	-1,298	-1,298
주성엔지니어링	-398	-867	-1,265
동진썬미켐	-1,062	-153	-1,215
대아티아이	-21	-1,053	-1,075
펄트론	-640	-349	-989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호텔신라	222	15,723	
LG전자	165	9,666	
한미약품	17	9,563	
삼성물산	66	8,491	
삼성SDI	66	7,481	
삼성중공업	563	5,761	
S-Oil	59	5,189	
현대건설	98	3,852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08	10,746	
바이로메드	26	3,480	
카카오	23	2,273	
파라다이스	116	2,020	
AP시스템	78	1,474	
서울반도체	80	1,209	
메디투스	3	1,194	
씨젠	30	1,01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819	4,774,293	
호텔신라	16,868	1,216,182	
POSCO	4,715	1,077,378	
현대중공업	9,589	1,064,370	
한미약품	1,863	1,056,360	
현대차	5,875	837,254	
NAVER	1,213	822,259	
OCI	6,834	789,340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4,842	2,461,802	
카카오	10,807	1,076,363	
메디투스	798	323,828	
바이로메드	1,966	262,293	
로엔	3,083	232,771	
파라다이스	11,742	203,717	
코미팜	3,694	148,326	
컴투스	1,144	142,87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주 수	순 감	금액
증권	4,184	종이목재	-1,510
은행	4,079	유통업	-540
전기전자	3,251	음식료	-482
우리은행	3,753	팬오션	-1,537
한화투자증권	2,713	대영포장	-1,440
한진칼	2,230	제일기획	-1,253
쌍용양회	2,112	한진중공업	-950
한진해운	1,484	SK하이닉스	-932
LG전자	1,172	우리종금	-858
대우조선해양	1,003	호텔신라	-829
동양물산	939	금호타이어	-787
대우건설	866	SK네트웍스	-749
삼성전기	834	한화테크윈	-703

KOSDAQ			
순 증	주 수	순 감	금액
출판,매체복제	2,434	반도체	-2,955
IT부품	675	제약	-1,479
운송장비,부품	389	일반전기전자	-588
로엔	2,409	원익홀딩스	-2,785
파트론	380	셀트리온	-974
지앤코	319	키이스트	-690
파라다이스	285	부방	-520
CMG제약	228	NICE평가정보	-452
이랜텍	200	차이나그레이트	-400
현진소재	199	아이이	-390
오스텝임플란트	166	대아티아이	-351
웹젠	159	인포피아	-351
조아제약	157	씨젠	-33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4/27(수)	4/28(목)	4/29(금)	5/2(월)	5/3(화)
외국인	2,729.2	55.1	97.5	181.8	-203.3	63.9	63.9	-31.7
기관계	-571.7	-355.7	-700.2	-257.9	116.5	-203.1	-203.1	-177.8
(투신)	-1,427.3	-12.3	-181.0	-79.0	-40.1	-49.7	-49.7	-10.3
(연기금)	372.8	3.1	-0.4	6.9	18.2	-28.5	-28.5	-12.1
(은행)	-385.7	-5.8	-32.6	-10.4	-15.2	-1.3	-1.3	-1.9
(보험)	2,494.7	10.9	-69.2	-27.3	-40.7	-12.1	-12.1	-3.5
개인	-2,334.4	248.8	524.2	77.6	88.3	109.5	109.5	180.4
기타	176.8	51.8	78.5	-1.5	-1.5	29.8	29.8	29.2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4/26(화)	4/27(수)	4/28(목)	4/29(금)	5/2(월)
KOSPI	2,011.3	1,915.6	1,961.3	2,019.6	2,015.4	2,000.9	1,994.2	1,978.2
고객예탁금	14,211.8	15,842.5	22,695.6	23,056.7	24,164.6	23,451.7	22,892.6	23,234.6
(증감액)	-3,802.5	1,630.7	6,853.1	425.6	1,107.9	-712.9	-559.1	342.0
(회전율)	29.9	34.0	28.8	40.2	37.4	38.0	37.1	31.7
실질예탁금증감	-10,123.5	-2,003.0	7,687.7	475.3	1,048.4	-813.3	-383.0	435.4
신용잔고(KOSPI)	2,300.6	2,542.3	3,035.6	3,263.5	3,271.7	3,287.8	3,277.2	3,276.4
신용잔고(KOSDAQ)	1,893.2	2,537.5	3,491.2	3,879.8	3,897.4	3,911.6	3,893.8	3,909.1
미수금	92.9	117.6	151.0	127.9	134.8	211.2	168.3	174.4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4/25(월)	4/26(화)	4/27(수)	4/28(목)	4/29(금)
전체주식형	79,871	-1,434	-1,881	54	-65	-201	8	4
(ex.ETF)		-1,436	-879	47	-15	-64	8	4
국내주식형	61,503	-1,772	-1,881	49	-62	-205	3	6
(ex.ETF)		-1,775	-883	42	-13	-68	3	6
해외주식형	18,368	338	0	4	-2	4	5	-2
(ex.ETF)		339	4	4	-2	4	5	-2
주식혼합형	8,241	-51	-43	-4	-26	5	3	-2
채권혼합형	30,540	-198	-291	-27	-36	-52	-7	-30
채권형	95,719	9,052	2,910	366	232	112	542	563
MMF	111,659	17,766	8,184	-915	-623	555	318	-3,99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4/27(수)	4/28(목)	4/29(금)	5/2(월)	5/3(화)
한국	2,373	48	84	158	-178	56	-28	76
대만	5,136	0	-386	2	-201	-188	-	-
인도	1,799	0	99	66	36	-	-	-
인도네시아	298	-38	-133	-28	-38	-29	-38	-
태국	384	0	-38	-2	-22	-14	-	-
남아공	-2,596	0	-203	-	14	-	-	-
필리핀	42	-1	7	3	-1	5	-1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5년말	4/27(수)	4/28(목)	4/29(금)	5/2(월)	5/3(화)
회사채 (AA-)	2.11	1.92	1.91	1.91	1.92	1.90
회사채 (BBB-)	8.06	7.93	7.93	7.92	7.94	7.92
국고채 (3년)	1.66	1.46	1.45	1.45	1.46	1.44
국고채 (5년)	1.81	1.56	1.55	1.55	1.56	1.55
국고채 (10년)	2.08	1.81	1.80	1.79	1.80	1.79
미 국채 (10년)	2.27	1.85	1.82	1.83	1.87	-
일 국채 (10년)	0.27	0.05	0.07	0.07	0.12	-
원/달러	1,172.50	1,148.30	1,138.20	1,139.30	1,138.80	1,140.20
원/100엔	972.63	1,032.92	1,047.78	1,061.99	1,069.79	1,079.22
엔/달러	120.55	111.17	108.63	107.28	106.45	105.65
달러/유로	1.09	1.13	1.13	1.13	1.14	1.15
DDR3 1Gb (1333MHz)	1.00	0.88	0.88	0.87	0.87	-
DDR3 2Gb (1333MHz)	1.13	0.94	0.91	0.91	0.91	-
NAND Flash 16Gb (MLC)	1.46	1.41	1.41	1.41	1.40	-
CRB 지수	176.81	183.21	183.16	184.61	182.52	-
LME 지수	2,217.9	2,351.3	2,374.5	2,414.3	2,414.3	-
BDI	478	715	710	703	703	-
유가 (WTI, 달러/배럴)	37.04	45.33	46.03	45.92	44.78	-
금 (달러/온스)	1,060.00	1,247.40	1,256.00	1,285.65	1,285.6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5	26	27	28	29
美> 3월 신규주택매매(천건) (511, 520, 519)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106.6, 107.1, 106.7)	韓> 1분기 GDP YoY (2.7%, 2.7%, 3.1%)	美> FOMC 통화정책회의 (0.25%, 0.25%, 0.25%) 1분기 GDP QoQ (n/a, 0.6%, 1.4%)	日> BOJ 통화정책회의 (-0.1%, -0.1%, -0.1%)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1%, 0.0%, 0.3%)	韓> 3월 광공업생산 YoY (-1.5%, 0.3%, 2.2%) 유럽> 1분기 GDP QoQ (0.6%, 0.4%, 0.3%) 3월 실업률 (10.2%, 10.3%, 10.4%) 美> Kaplan 연준이사 연설 (투표권 미보유)
5/2	3	4	5	6
美> <b>4월 ISM 제조업지수 (50.8, 51.4, 51.8)</b> Dudley 연준이사 연설 Lockhart 연준이사 연설  中> 4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50.1, 50.3, 50.2)  韓> <b>4월 수출 YoY(1일) (-11.2%, -10.3%, -8.1%)</b>  유럽> 4월 마켓 제조업 PMI (51.7, 51.5, 51.5)  실적발표> 韓 SK네트웍스, 아모레퍼시픽, 한국지역난방공사, 동아에스티 美 시스코	中> <b>4월 차이신 제조업 PMI (49.4, 49.8, 49.7)</b>  韓> 4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0%, 1.0%, 1.0%) 4월 코어 소비자물가지수 YoY (1.8%, 1.6%, 1.7%)  美> Williams 연준이사 연설 Mester 연준이사 연설  실적발표> 韓 코웨이, OCI, 락앤락 美 화이자, 에스티 로더, CBS, 듀크 에너지	美> 3월 제조업수주 (n/a, 1.0%, -1.7%) 3월 내구재주문 (n/a, n/a, 0.8%) Lockhart 연준이사 연설  실적발표> 韓 DGB금융지주, CJ대한통운, BNK금융지주,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 美 타임워너, 노블 에너지, 푸르덴셜 파이낸셜, 메트라이프, 트립 어드바이저	美> Kashkari 연준이사 연설  실적발표> 美 디스커버리 홀딩스, 켈로그, 모토로라  日> 4월 본원통화 YoY (n/a, n/a, 28.5%)	美> <b>4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천명) (n/a, 200, 215)</b> 4월 실업률 (n/a, 5.0%, 5.0%) 4월 시간당 평균 임금 MoM (n/a, 0.3%, 0.3%) Bullard, Kaplan, Lockhart, Williams 연준이사 연설  日> 4월 본원통화 YoY (n/a, n/a, 28.5%)
9	10	11	12	13
中> 4월 외환보유고(7일) 4월 수출 YoY(8일) 4월 수입 YoY(8일) 독일> 3월 공장수주 MoM	中> 4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4월 M2 통화공급 YoY (~15일) 4월 신규대출 (~15일) 독일> 3월 산업생산 MoM	韓> 4월 실업률	유럽> 3월 산업생산 MoM 日> 3월 BOP 경상수지	韓> 금통위 금리 결정 유럽> 1분기 GDP 독일> 4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